



제 9회 다민족조찬기도회가 22일 오전에 가든스윗호텔에서 다민족 종교 지도자 및 사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제 9회 다민족조찬기도회 인종차별 해소되길 염원

“언어와 문화 등의 차이로 인해 분열된 각 커뮤니티간의 평화와 화합을 위해 기도하며 연합해야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KLCA 김태현 대표)

2014년 ‘흑인역사의 달’을 맞아 제 9회 다민족조찬기도회가 22일(토) 오전 8시에 가든스윗호텔에서 170여명의 백인, 흑인, 라티노, 동양인 등 종교 지도자 및 사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열렸다. 행사는 코리안·라티노 커뮤니티협회(이하 KLCA, 대표 김태현)가 ‘예수의 이름으로 연합’이란

주제로 주최한 가운데 사역자들은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다민족간의 인종차별과 분열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소되길 기도했다.

설교자로 나선 흑인 목회자 엘머 잭슨(Rev. Dr. Elmer Jackson) 목사는 “불행히도 오늘날 이 세대는 자신 외에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상대를 배척하고 민족 간에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며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 자들로서, 형제자매인 다민족의 아픈 상처와 고통을 이해해야 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 다 회개하고 인종간의 벽을 허물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커뮤니티 평화봉사상에는 마이클 존스 목사(Michael S. Jones)와 헨리 올리바네즈(Henry Olivarez) 목사와 도나 올리바네즈 전도사(Donna Olivarez) 부부가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마이클 존스 목사는 YMCA 및 여러 사회단체에서 청소년과 교회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해온 목회자로, 한흑간의 갈등해소를 위해 오랫동안 헌신해왔다. 헨리 올리바네즈 목사와 도나 올리바네즈 전도사는 교도소에 있는 범죄자들과 가난하고 굶주리는 다민족 사람들에게 의복과 음식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펼치고 있다.

토마스 멩 기자

美 목회자 60%

“교회가 문화전쟁에서 패배”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20일 발표에 따르면, 목회자와 성도들은 교회가 세상과의 문화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으며 종교자유에서 패배하는 것도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었다.

2013년 9월 수행된 이 설문에서 개신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의 70%는 “미국에서 종교자유가 감소하고 있다”고 답했다. 자신을 복음주의자라 생각하는 목사는 81%, 주류교단에 속한 목사는 47%가 그렇게 생각해 신학적 성향에 따라 이 문제를 보는 관점은 약간 달랐다.

또 목사의 59%는 “문화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11%는 “이미 문화 전쟁에서 패배했다”고도 했다. “승리했다”고 말한 사람은 1%밖에 되지 않았고 “승리하는 중”이라고 본 사람은 10%였다. 19%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역시 복음주의자 목사는 79%, 주류교단 목사는 60%가 문화전쟁에서 “패배했다” 혹은 “패배 중이다”라고 답해 성향의

차이를 나타냈다.

한편, 이 조사와 동일한 시기, 미국인들은 54%가 “종교자유가 감소하고 있다”고 답했고 38%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미국 사회가 크리스천들에 대해 비관용적이 되고 있다”는 말에는 50%가 동의했으며 9%가 동의하지 않았다.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에드 스테처 회장은 “1960년대 미국의 기독교인은 전 인구의 3분의 2에 달했지만 지금은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기독교인의 감소가 문화적 영향력의 감소와 상관있다”고 말했다. 또 “교회는 사회에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됐고 면세 등 법적 특권을 누렸다. 사람들은 교회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교회를 의지했다”면서 “그러나 이제 기독교인은 더이상 긍정적 범주에 들지 않으며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실천하는 일에 보다 능동적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신 기자

소치서 뿌린 복음의 씨앗 열매 맺길 기대

“2014소치 동계올림픽이 테러 같은 큰 사고 없이 안전하게 끝나 정말 다행입니다. 노방전도를 하면서 누구한테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지는 모르지만 여딘가에서 열매가 맺히길 기대합니다.”

동계올림픽 기간 통역 및 전도 활동에 참여한 세계포스선교회 소속 L선교사는 “우리는 각자 자리로 돌아 가지만 남겨진 현지 교회들이 살아남아야 이 지역이 복음화될 수 있다”며 한국교회의 지속적인 기도를 요청했다. 모스크바에서 20년 넘게 태권도 사범으로 활동한 L선교사는 모스크바 선교사 자녀(MK) 3명 등과 함께 지난 3일부터 24일까지 소치에 머무르며 전도지와 전도 배지를 각국 선수와 응원단, 관광객에게 전달했다.

그는 “경기장 안에는 들어가지 못

하고 주변에서 2~3시간씩 전도했다”며 “축제 분위기가 그런지 사람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있었다”고 말했다. “평상시 전도하러 가면 거부감이 많은데 대회 기간에는 먼저 관심을 보이고 다가와 사진도 찍고, 심지어 전도 배지를 돈을 주고 사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며 “준비해 간 전도 배지가 5백 개뿐이어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려 했다”고 말했다.

이번 동계올림픽은 통역 자원봉사로 참여한 MK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됐다. L선교사는 “MK들이 함께 노방전도를 하면서 올림픽 선교는 어떻게 하는지 배웠을 것”이라며 “이번 계기로 스포츠 선교를 비롯해 선교에 관심 있는 MK들이 한 명이라도 더 생긴다면 정말 보람된 일이다”고 말했다.

>> 14면에 계속

복음주의와 과학은 적대 관계? 꼭 그렇진 않은듯

미국 과학자 가운데 10명 중 2명은 복음주의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개최된 미국과학발전협회 연례 컨퍼런스에서는 흥미로운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라이스대학교 사회학 교수인 일레인 하워드 유클랜드(Elaine Howard Ecklund) 박사는 총 574명의 과학자들을 상대로 설문을 실시했고, 이 중

17%에 달하는 수가 자신을 복음주의자로 정의내렸다. 복음주의자는 성경을 기록된 문자 그대로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복음주의자들과 과학자들은 ‘양립할 수 없는 적’의 관계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 결과는 이같은 통념과는 달리 상당한 수의 과학자들

이 복음주의의 신앙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유클랜드 박사는 설명했다.

한편 조사를 통해 드러난 또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복음주의 과학자들은 과학자가 아닌 일반적인 복음주의 교인들보다 더 스스로를 ‘종교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었다.

손현정 기자

나라정비 ASE
유림차 전문점
 SMOG CHECK
323.734.4881 | 월~금: 8am~6pm 토: 8am~5pm |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관 12가

나라 오토 텐트
 범퍼·도어·바디복원
 무료견적·Rent Car

크리스천을 위한 **오바마케어 벌금면제 혜택**
 (H.R.3590 Religious Exemption)
월\$40~\$175
 • 수입과 신분에 상관 없음
 • 모든 의사, 병원 사용 가능
 • 한국에서도 사용 가능

가임문의 213-700-9212
 www.christianmutual.org

청지기 프로그램
 STEWARDSHIP PROGRAM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Min Kim CEO

• America Wheat (Milal) Mission in Southern California
 • Ark of Noah Church
 • Asian American Cancer Fellowship of California
 • Asian American Job Training Center
 • Asians for Miracle Marrow Matches
 • Berakah Ministry
 • Charis Christian Chamber
 • Choong Hyun Mission Church Shalom University
 • Christian Counseling Service
 • Circle of Friends in Love

• City of Refuge Mission Center
 • Community Special Program Partners
 • Duranno Father School, USA
 • Family Saver Center
 • Gilgal Recovery Ministry
 • H.Y.M. (Here am I Young Christian Movement)
 • Hanmi Family Counseling Center
 • Happy Village – The Korea Daily
 • Hope Sight Mission Association
 • Hyosarangus Mission
 • Institute for the Study of Asian American Christianity (ISAAC)
 • International Disability Ministry Association (IDMA)
 • Joy Center for the Disabled
 • K-A Elder Service
 • Koinonia Mission
 • Korean American Coalition
 • Korean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Center
 • Korean American Family Services (KFAM)
 • Korean American History Museum
 • Korean American Mission Center for Addition Recovery
 • Korean American Special Education Center

• Korean American Women’s Association
 • Korean Bible Mission
 • Korean Community Services
 • Korean Gospel Broadcasting Co. (KGBC)
 • Korean Immigrant Workers Advocates of Southern California (KIWA)
 • Korean Resource Center
 • Korean School Association of America
 • Korean Senior Citizen’s Association of San Fernando Valley
 • Korean Welfare Organizations of America, Inc.
 • Koreantown Youth and Community Center
 • LA Mom and Dad Mission
 • Los Angeles Symphony
 • Mental Health Family Mission
 • Miju Holy City Movement
 • Mom and Dad Mission
 • Nanum Korean Cultural Center
 • New Covenant Academy
 • New Hope Mission
 • Oaks of Righteousness Ministry
 • Orange County Korean – U.S. Citizen League
 • Rainbow Family, Inc.

• Sansang Bohoon Christian Church
 • SEED International, ICN.
 • Shalom Center for T.R.E.E. of Life
 • Shalom Disability Ministries
 • Shalom Life Line
 • Somang Society
 • SON Ministries
 • Special Service for Groups, Inc.
 • The Little Jesus Family, L.A. Inc.
 • The Open Academy
 • The Street Mission Los Angeles (Precious People)
 • The Well Mission
 • United Job Creation Council
 • Vessel of Grace, Inc.
 • Vision Care Service West
 • Watered Garden Mission for Physically Challenged
 • Wesley Music Ministries (LA Korean Youth Orchestra)
 • World Special Federation
 • Worldwide Marriage Encounter Section 19 Inc., Southern California
 • Young Leaders of Orange County
 • Young Nak Outreach & Transformation Foundation (YNOT)

*Open Stewardship 재단이란?
 Open Stewardship 재단은 지역사회 봉사를 통해 2011년 오픈뱅크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단체입니다. 동 재단은 매년 수익의 10%를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되었습니다. 오픈뱅크에서는 본 지원금으로 종래의 기금제공 방식으로는 불충분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체들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Reward Reception 3월 20일 6시 오픈뱅크
 1000 Wilshire Blvd., Suite 500, Los Angeles, CA 90017 | 213.892.1197

openbank

“교회 향한 비판은 구제만 잘 하면 다 해결?”

미주복음방송 목회자 세미나 구제 사역 주제로 진행

교회의 진정한 구제 사역은 어떤 동기와 어떤 형태로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 미주복음방송의 신년 목회자 세미나가 '이웃 사랑'이란 주제 아래 지난 25일 진행됐다. 이 세미나에서는 나성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와 의나무교회 이준 목사가 각각 40분씩 강의를 맡았다.

먼저 진유철 목사는 사도행전 11장 22-30절 말씀에서 이방교회인 안디옥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는 장면, 큰 흉년의 때에 안디옥 성도들이 유대의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실행하는 장면을 찾아냈다.

진 목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유대인과 비유대인인 구도에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으로 전환되는 이 시점에서 안디옥 성도의 모습을 보자”고 했다. “가이사가 주(主)”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가 주”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습을 건 신앙에 사람들은 그

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행한 일은 형제들을 구제하기로 결정한 것과 즉각적으로 구제를 실행한 것이다. 진 목사는 “예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구제를 강조하시고 율법서인 레위기 19장, 신명기 15장, 23-24장에도 구제에 관해 기록돼 있다. 아모스, 이사야 등 선지자들도 불의한 경제 구조에 대해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구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단정지으며 “요즘 교회가 사회적 비판에 직면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대사회적 명령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진 목사는 구제지상주의는 강력히 경계했다. 그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구제, 억지로 하는 구제, 남도 하니 나도 한다는 식의 구제는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안디옥교회에서 볼 수 있듯이 먼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해진



미주복음방송이 주최하는 목회자 세미나가 나성순복음교회에서 25일 개최됐다.

후에야 진정한 구제를 실천할 수 있다”면서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의 구제는 외식이 되기 쉬우며, 오히려 교회에 상처를 남길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즉, 안디옥교회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구제를 결심할 수 있고 즉각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 점에

서 구제보다는 영적 부흥이 먼저”라는 전제 하에 “하나님의 감동이 없다면 기다리라. 내면의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워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거듭 강조했다.

두번째 강사인 이준 목사는 LA 다운타운에서 노숙자 식사 섬김 사역을 하고 있다. 그는 ‘오병이어’라는 사역

체를 통해 매주 7만 명의 노숙자, 빈곤 가정에 음식을 전달하고 있다.

그는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전하면 복음도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음을 깨닫고 기도하던 중 “떡을 주는 것만으론 안 된다. 진정한 떡인 예수를 전하라”는 응답을 받았다. 그때부터 이준 목사는 음식을 얻기 위해 찾아온 수많은 노숙자들에게 “우리가 음식을 준다”는 생각을 버리고 “예수께서 주신 음식을 우리는 전달만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이 단체는 노숙자들에게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식사는 예수님께서 내시는 겁니다”라고 인사했고 복음 전파와 함께 사역이 급성장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됐다.

그는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고 간증하며 참석자들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했다.

김준형 기자

전세계 여성들 올해는 이집트 위해 기도한다



상) 이영희 증경회장, 최미란 회장, 유화진 서기, 최순자 부회장이 이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동참을 당부했다.
하) 지난해 남가주 지역에서 열린 세계기도일 예배 후 기념사진.

전세계 여성들이 올해는 이집트를 위해 두손을 모은다. 매년 3월 첫째 금요일은 180여개 국의 교회 여성들이 한 날, 한 시에 초교파적, 초교단적으로 모여 기도하는 세계기도일 예배의 날이다. 매년 마다 특별히 지정된 국가의 여성들이 기도문을 작성하고 전세계에 배부하면 모든 나라에서 동일한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이 예배 헌금도 그 나라로 전달돼 각종 선교 사역에 사용된다.

올해 기도문은 이집트에서 작성했으며 주제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다. 이집트는 인구 7천9백만 명의 아프리카 국가로 인구의 9%가 기독교를 믿는다. 전체 기독교인의 절대 다수가 콥트기독교인으로 이들은 무슬림들의 무차별 총격, 방화와 살인, 약탈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역시 여성과 어린이 등 약자들이다. 기도문에서 이집트 여성들은 “구약성경에서 이집트는 출애굽 전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던 바로 왕과 연관됐다”면서, “그러나 바로의 딸이 보여준 영웅적 역할은 종종 잊혀진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이들은 용감한 여성으로서 바로의 딸을 조영하면서 아버지의 명을 거역하고 아기 모세를 구한 후 자신의 아들로 양육한 여성의 모성애를 강조한다. 또 헤롯의 유아살해 시기에 예수께서 이집트로 피신하셨고 이집트는 예수의 피난처였다고도 말한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집트의 역사를 통해 가뭄과 고난을 경험하는 백성에게 사막에 흐르는 샘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생각한다”고 했다.

남가주 지역에서는 미주한인교회 여성연합회 남가주지부 주최로 미주 평안교회(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에서 3월 1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예배가 진행된다. 남가주지부의 최미란 회장은 “남가주 지역은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부득이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게 됐다”고 설명하면서 “남가주의 한인 이민자 여성들이 이집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이다”라고 했다.

남가주지부 역시 초교단, 초교파적으로 여성들이 이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 최 회장은 “여성들이 자기 교회 안

에만 갇히지 말고 함께 연합해 전세계를 위해 기도하자”고 독려했다. 현재 15명의 임원들이 이번 행사를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당일에는 약 20여 교회에서 150여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1887년 다윈 제임스 여사(미국장로교 국내선교부 의장)가 당시 유럽, 아시아 등지에서 미국으로 유입된 이민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을 정한 데서 유래된 세계기도일은 현재 127주년을 맞이해 180여개 국에서 지키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1922년 만국부인회가 중심이 되어 세계기도일에 참여했으며 현재는 한국교회여성연합회가 세계기도일을 지키고 있다. 한국은 1930년 “예수님만 바라보며”, 1963년 “이기는 힘”, 1997년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듯이”라는 주제로 기도문도 세 번이나 작성한 바 있다. 미주에서는 한인교회여성연합회를 중심으로 1979년부터 세계기도일을 지키고 있으며 현재 전 미주 70여개 지역에서 기도회가 열리고 있다.

문의 : 714-331-6048
milanchoi57@gmail.com
김준형 기자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버드 3130 W. Olympic Blvd, Suite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어름다운 여인이 되어서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원) W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천천히 다 둘러보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교회창립 21주년 기념 복흥성회

일시 2014년 3월7일(금)-3월9일(주)

3월7일(금) 저녁 7:30 복음의 십자가(갈 6:11-18)
3월8일(토) 새벽 6:00 시작은 기도 목적은 전도(막1:35-39)
저녁 6:00 예수님을 놀라게 한 사람(눅7:1-10)
3월9일(주) 1부 9:00 기본에 강한 교회1(행2:36-42)
2부 11:30 기본에 강한 교회2(전 4장7-11)
오후 2:00 복음과 함께 하는 위대한 헌신(막14:1-11)

강사 황인명 목사
(부산중앙교회 담임)

임마누엘선교교회 L.A. IMMANUEL MISSION CHURCH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담임목사: 류종길 Phone: 323.766.9922 Fax: 323.766.9923

국제기아대책 LA사무소 오픈돼

케냐 위한 우물파기 프로젝트 시작돼



국제기아대책 미주한인본부 LA사무소 오픈감사예배가 지난 20일 사이프레스에서 드러졌다.

국제기아대책 미주한인본부(이하 KAFHI) LA사무소 오픈감사예배가 20일 오후 5시에 사이프레스에 위치한 건강보조식품회사 영신건강에서 드러졌다.

야고보서 2:14-19절을 본문으로 설교한 노진준 목사(한길교회)는 “흔히 사람들은 믿음을 어떠한 일에 대한 확신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가르키는 ‘확신’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아니라 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라며 “믿음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다. 예수님께

서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배는 사회 김형균 목사, 기도 백창호 목사, 성경봉독 정세훈 목사, 특송 지명현 목사, 설교 노진준 목사, 격려사 정충일 목사, 헌금기도 김도민 목사, 헌금송 홍선희 집사, 축사 민경엽 목사·박신욱 목사, 광고 정승호 목사, 축도 한기형 목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헌금은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학교와 마을을 위한 우물파기 프로젝트 2만 5000불 모금을 목표로 진

행했다. 이 학교는 무슬림 마을에 위치한 기독교학교로 KAFHI가 어린이를 후원하는 곳이다.

KAFHI는 2002년 이원상 목사(미주기아대책 설립자, SEED선교회 국제대표)를 통해 북미주를 포괄하는 국제기구로 창립했다. 이 단체는 11개국 12선교 사역지에 어린이센터, 고아원, 학교 등을 지원하는 동시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LA사무소에서는 선교훈련을 하면서 중보기도의 사역을 핵심적으로 펼쳐게 된다.

토마스 맹 기자

목사 사모들이 외로운 12가지 이유

“목사 사모들은 외롭다. 그들은 매일 고독, 우울증과 싸우고 있다.” 이 말을 이해 못하는 성도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 말에 공감하지 않는 사모는 없을 것이다.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대표인 톰 레이너 박사가 <사모들이 외로울 수밖에 없는 12가지 이유>라는 칼럼을 최근 발표했다.

1. 교회 내에서 표면적인 인간관계 때문이다. 성도들은 목사의 아내를 독립된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사모로만 보며 가까이 다가갈까 어려워 한다.
2. 목사인 남편이 너무 바빠기 때문에 혼자 남겨진 시간이 많기 때문이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에 우울함이 크다.
3. 심술궂은 성도들 때문이다. 사모들은 남편과 자신에 대해 나쁜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려 하기 때문에 더욱 외로울 수 있다.
4. 성도들이 목사에 대한 불만을 사모에게 종종 털어놓기 때문이다. 성도들은 남편의 고충을 사모에게 말하지만 사모는 남편에 대해 안 좋은 말을 고스란히 들어야 한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5. 자신감을 잃기 때문이다. 자신이 누군가와 한 말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보면 사람을 사귀는 자신을 잃게 된다.
6. 잦은 이동. 목회자는 언제 어떻게 사역지를 옮길지 모른다. 해

어짐에 대한 고통이 싫어서 사람을 안 사귀는 경우도 있다.

7. 이유 인성 취급을 받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사모를 소개할 때, 사모의 이름을 말하거나 그의 특성을 말하기보다 “목사의 아내”로만 소개한다.
8. 지지 그룹이 적기 때문이다. 자신의 사역을 도와 줄 수 있는 지지 그룹이 있으면 사모에게 큰 힘이 되지만 그런 지지 그룹을 가진 사모는 극히 소수다.
9. 남편과 데이트를 못하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다. 남편과 마지막으로 데이트를 해 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조차 못하는 사모들이 종종 있다.
10. 자녀 문제다. 성도들은 목사 자녀는 자신들의 자녀에 비해 무엇인가 다르고 완벽해야 한다고 믿는다. 자녀에 대한 압박은 사모에게도 매우 크다.
11. 남편이 아내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 교회를 최우선으로 두는 남편에 대해 아내는 마치 남편을 빼앗긴 것 같은 마음이 될 때가 있다.
12. 경제적 어려움도 크다. 경제적 어려움은 사모가 사회적 활동을 하는 데에 장애를 주어 사모의 삶을 더욱 고립시킨다.

레이너 박사는 “많은 사모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충족으로 받아들이지만 동시에 큰 외로움을 겪는다”고 했다.

이집트 폭탄 테러, 상황 객관적으로 봐야

한국위기관리재단은 16일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폭탄 테러와 관련 “국내 여행자들이 위험 지역을 여행할 때에는 현지 전문가나 책임자, 여행사에게 구체적인 현지 상황을 충분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단 측은 “그러나 사실 테러 피해자나 여행자들은 현지 상황을 구체적으로 다 파악하기 어렵다”며 “엄밀히 말하면 여행사에서 현지 상황을 잘 파악하고 가급적 여행을 자제하거나 주의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시나이 반도 북동부 국경도시 타바에서 발생한 사고 버스에는 총북 진천중앙교회 성도 31명과 인솔자 1명, 현지 가이드 1명 등 한국인 33명과 운전사 1명, 현지 가이드 1명 등 이집트

인 2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번 사고로 한국인 3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부상했다. 한국위기관리재단 김진대 사무총장은 사고 소식을 접한 후 바로 진천중앙교회를 방문해 교회측이 위기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왔다.

한국위기관리재단 산하 위기관리 연구소장 도문갑 목사는 “성지순례는 여행사에서 만든 관광루트를 따라간 것”이라며 “방문 목적을 영적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상황을 객관화시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이집트 군부와 무르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슬람 형제단 사이의 충돌이 계속됐지만, 이슬람 무장단체가 관광객을 위협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성지순례 관광은 계속돼 왔다”며 “공교

롭게도 이번 테러가 군부 세력에 대해 이슬람 무장단체가 관광객을 공격하는 첫 신호탄이 됐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또 “매년 1천만 명이 해외여행을 하는데 민감한 지역을 여행할 때는 조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2010년 발족한 한국위기관리재단은 맞춤형 위기관리 교육 프로그램과 위기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개인 및 단체의 위기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위기 사건 종료 후 수습과 조기 복귀를 지원하는 컨설팅 업무를 지원한다. 작년에는 2007년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 종합보고서를 발간했으며 선교사 위기관리지침서 재개정, 선교기관 멤버케어 협약서 등을 체결했다.

이희희 기자

갈보리선교교회 말씀집회 연다

갈보리선교교회(심상은 목사)가 창립 33주년 기념콘서트 및 말씀집회를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연다.

또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는

이 교회에서 남가주일본인 아버지학교가 있었다.

지난 월요일 메인강사였던 후꾸자와 미쯔오 목사가 일본으로 출국했다.

전두승 목사가 나신다. 전두승 목사는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통해 하늘문이 열리고, 영광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치유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626) 372-5151

킹덤빌더즈 오픈 헤븐 글로리 컨퍼런스

내달 1일(토) 오후 2시와 저녁 7시에 시티베스트교회(전두승 목사)에서 경배와 찬양 및 은혜와 치유의 모임인 킹덤빌더즈 오픈 헤븐 & 글로리 컨퍼런스가 열린다.

감사에는 테리존슨 사역자와

전두승 목사가 나신다. 전두승 목사는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통해 하늘문이 열리고, 영광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치유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626) 372-5151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진정하게 웃음으로 사랑해 드립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24hr 한국어 서비스

굿모닝 보험 213.761.9990 KEVIN YOO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LA 한남체인내 **건강제품코너**

인터엔이 직접캔 **천종야생 산삼**

매실, 홍삼, 비타민, 녹용, 각종 한방 농축즙

213)386-3585

www.uslahealth.com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위크퍼밋과 소셜NO.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용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1~6단계, 회화반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 아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아침반, 저녁반
-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이민국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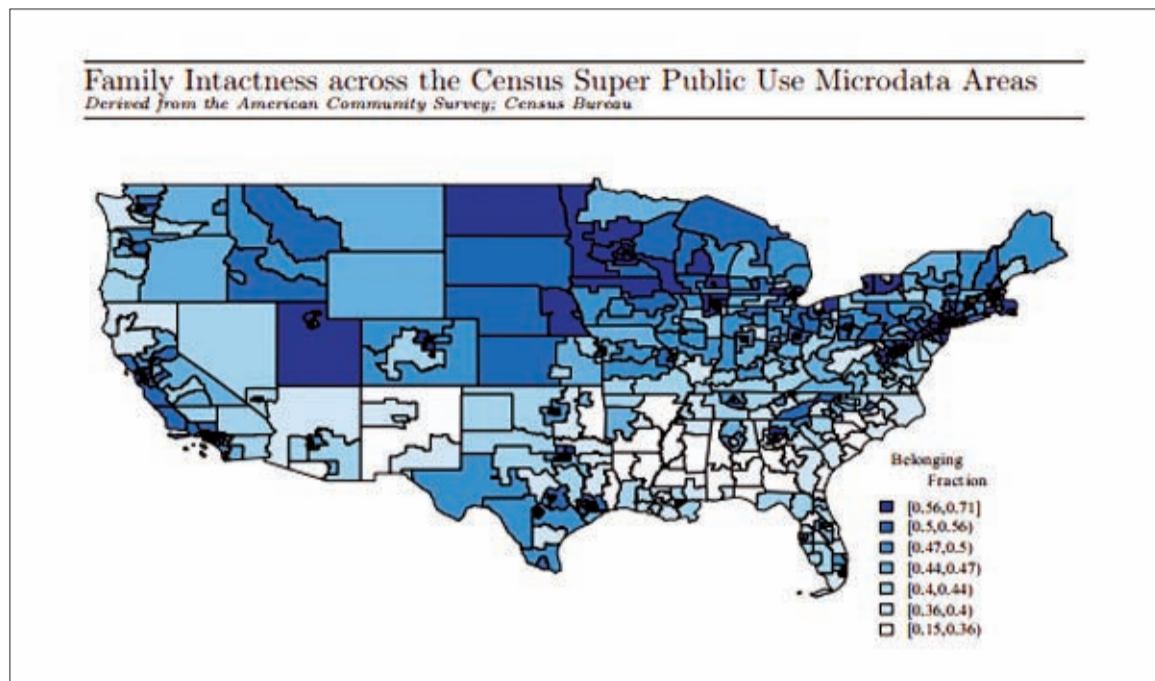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바이블 벨트의 비극 가장 많은 가정 해체돼

15세-17세 청소년 중

손상되지 않은 가정에 속하는 비율 46%에 그쳐



이 지도는 미국 내 가족의 지속상태(자녀 나이 15-17세를 기준으로 그들의 생물학적 부모의 혼인상태 여부)가 가장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역을 보여준다. 색이 짙을 수록 높은 지속 상태를 나타낸다. ©가정연구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

가정연구위원회의 결혼과 종교연구회(Marriage and Religion Research Institute)의 팻 페이건(Pat Fagan) 감독은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블 벨트 지역의 가정은 심한 곤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예배를 덜 드리는 이들일수록 가정은 온전하며 예배를 더 많이 드리는 이들일수록 가정이 손상돼 있다"며 놀라움을 표했다.

호프크리스천 교회의 담임목사이자 하이임팩트 리더십 연합체(High Impact Leadership Coalition) 창립 회장인 해리 잭슨 Jr. 주교는 흑인 공동체 내에서 가정의 붕괴가 유독 두드러진다고 지적하며, 인종에 따른 차이를 설명했다. 그는 "흑인 가정이 사회적 추세를 가장 끈질기게 체험하고 있으나, 이는 그들이 앞장서는 것 뿐"이라고 단언했다. 잭슨은 아시아 가정들이 가족 붕괴 비율이 가장 낮으나 그들도 똑같은 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수요일 발표된 "연례 4차 가정의 지속과 거부"에 관한 지표(The Fourth Annual Index of Family Belonging and Rejection)에서는 성인기에 접어드는 자녀들이 그들 가정의 해체를 경험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페이건은 "15세에서 17세의 자녀들 중 혼인을 유지하고 있는 가정에 머물고 있는 비율"을 측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에 따르면, 15세-17세의 청소년 중 출생 무렵, 혹은 그 이전부터 혼인을 유지해 온 생물학적 부모에 의해 양육된 비율은 46퍼센트에 그쳤다. 54퍼센트는 부모가 혼인을 유지하지 않았다.

지역적으로 보면, 남부 혹은 바이블 벨트 지역은 가정을 지속한 비율이

가장 낮고(42%) 북동부가 가장 높다(50%). 주 중에서는 유타가 57퍼센트로 가장 높고 컬럼비아 특별구가 17퍼센트로 가장 낮으며, 미시시피(32%), 루지애나(36%)가 그 뒤를 이었다. 아시아인이 가장 가정을 존속하는 비율이 높았으며(65%), 흑인이 가장 낮았다(17%).

페이건은 "남부의 가정들은 그들의 신앙을 실천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그는 교회 출석률이 가장 높은 주는 남부이며 보통은 교회에 많이 참석할수록 가정을 지키지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남부 교회들은 정말 성적으로 잘못하고 있다."

지난달에 발표된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성적인 도덕성에 엄격한, 보수적인 개신교인과 복음주의자들의 이혼율이 자유주의 크리스천보다 더 높았다. 그럼에도 이 연구의 저자는 "세속주의는 보수적인 개신교보다 이혼을 더 조장한다"고 인정했다.

페이건은 컬럼비아 자치구 내 아프리카계 미국인 중 가정을 유지한 비율이 9퍼센트, 밀워키 7퍼센트로 흑인공동체가 가장 비율이 낮았다고 분석했다. 이 조사는 "흑인 가정은 가정과 결혼에 있어 완전한 붕괴 직전에 와 있다"며 "이로 인해 그들은 빈곤 속에 갇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잭슨은 이 시민 붕괴의 뿌리가 린든 존슨(Lyndon Johnson) 대통령의 "빈곤과의 전쟁", 인종차별의 시대, 심지어 노예시대에 있다며 동의를 표했다.

잭슨은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들이 가정 내 자신의 역할과 개인으로서의 가치에 대해 부정적 느낌을 지니게 된 것은 노예제로부터 1960년대의 짐 크로법(Jim Crow Laws, 공공장소에

서 흑인과 백인의 분리와 차별을 규정 한 법, 1876년부터 1965년까지 시행됐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했다. 그는 "60년대 빈곤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워싱턴의 조치는 가족 빈곤의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그 새로운 구제 제도는 여성이 남성 없이 가족을 부양하는 것을 받아 들일만하고 가능하게 만들었다. 아시아계 미국인 전략 상담가, 아이디어 창조자, 연결자인 DJ 장(DJ Chuang)은 아시아 가정의 배후에 있는 문화적 관념을 설명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아시아 문화는 가족을 돌볼 책임, 의무, 충성의 가치를 매우 높게 여긴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가치들은 혼인을 지속 하길 바라며, 사회적인 낙인과 이혼에 대한 수치심을 피하려는 사회적인 기대에 의해 강화된다."

잭슨은 이에 동의하며 아프리카계 이민자의 첫 세대 역시 그들처럼 가정에 헌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페이건은 아시아 가정에서도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시아계 가정들은 다니얼 패트릭 모이니한(Daniel Patrick Moynihan)이 책을 썼던 60년대에 흑인 가정들이 놓여 있던 장소에 서 있다"고 말했다. 모이니한은 흑인 가정의 와해를 막기 위해 저술했으며 현재 모든 인종이 같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페이건은 교회가 가정을 지키지 못한 현실을 비판하며 이 부끄러운 상황을 고발할 구약의 선지자 같은 사람이 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도시의 가정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공표하며 전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디 한 기자

인디애나 상원도 동성결혼 금지 헌법개정안 통과

전 미국적으로 동성결혼 합법화가 줄을 잇는 가운데 인디애나 주 상원이 동성결혼을 주 헌법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은 32대 17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하원 역시 한 달 전 57대 40으로 이를 통과시킨 바 있다.

당초 법안은 시민결합도 금지할 정도로 강력한 수위를 지니고 있었으나 표결 직전 이 조항은 폐기됐고 표결이 이뤄졌다. 이 법안은 상하원이 모두 통과시켰지만 조항이 변경되면서 하원이 다시 표결해야 한다. 하원은 2016년 주민 투표에 이 법안을 상정하기 위해 그 전에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완료해야 한다.

현재 인디애나 주는 헌법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다만, 결혼 관계 법령에서 결혼증명서 취득을 위한 서류에 허위 기재할 경우 이를

범죄로 취급한다. 예를 들어 만약 남성과 남성이 결혼증명서를 신청한다면, 의도적 허위 기재로 취급돼 D급 중범죄로 인식된다. 이 경우는 3년 징역에 1만 달러 벌금까지 가능하다. 동성결혼식을 올리는 행위는 일종의 사회 규범을 해치는 행동으로 여겨져 B급 경범죄로 다뤄진다.

전통결혼 지지자들은 동성결혼 문제로 인한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 헌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에 헌법이 개정되면 동성결혼은 법적으로 금지되지만, 동성애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 만약 시민결합까지 금지된다면 자신들의 입지에 심각한 타격이 오겠지만 일단 시민결합은 사수했기에 향후 언제든지 여론에 따라 소송을 통해 동성결혼 합법화를 시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영신 기자

미국 오순절교단들

100년만에 연합 역사 쓰다

미국의 두 오순절 교단들이 100년간의 분열 역사를 딛고 연합을 위한 중대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하나님의 성회(Assemblies of God)와 하나님의 성회협의회(Council of the Assemblies of God)는 최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회를 위해 협력적 제휴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미국에서 하나님의 성회는 1914년에 창립되었으며, 3년 뒤인 1917년 교단 내 인종차별주의에 반기를 든 교인들이 탈퇴하면서 1919년 새롭게 만든 오순절 교단이 하나님의 성회협의회다. 1917년 당시 하나님의 성회 소속 교인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던 알렉산더 하워드 리베리아 선교사로 지원했으나, 총회측은 그의 인종을 이유로 그에게 선교사직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하워드는 교단을 탈퇴해 1919년 뉴잉글랜드 지역 아프리카계 미국인 교회들과 새로운 오순절 교회 조직을 결성했으며, 1920년에 하나님의성회협의회라는 공식적인 교단으로 출범했다.

이 때 이래로 100여년간을 독립적으로 존재해 왔던 두 교단은 4년 전 하나님의성회협의회 회장인 토마스 바클레이(Thomas Barclay) 목사가 두 오순절 교단의 분열을 치유하고 연합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하나님의성회 조지 우드

(George Wood) 회장이 이를 받아들이며서 교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형제들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전1:10)'의 정신을 기치로 두 교단은 어떻게 회복해 나갈 것인지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한편, 하나님의성회는 이미 수십년간 교단 내의 인종차별주의를 극복하고 보다 더 인종적으로 다양한 교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었다. 우드 목사는 바클레이 목사의 화해를 향한 선언은 "화해를 위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히며, 하나님의성회협의회와의 연합은 하나님의성회가 인종주의 극복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대한 단계"라고 평가했다.

우드 목사는 "우리는 하나님의성회의 인종차별주의로 인해서 1919년 독립한 하나님의성회협의회와 지난 4년간의 여정을 함께 해 왔다"며,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식 파트너십 안에서 다시 하나되게 하였고,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역을 해나가게 할 것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순헌정 기자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다나병원의 3D 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내 투입이나 통증없이 신속정확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등 전신의 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들을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전신기능의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생약치료 2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621 S. Virgil Ave. #252, Los Angeles, CA 90005/ T. 213.487.0691

'3.1절 기념' 평화통일 소망기도회

초청의글

마지막 분단국가인 우리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교회가 연합하고 교계가 연합하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서로 연합할 때, 우리 미주한인 뿐만이 아니라 남북이 하나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면 머지않아 통일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동포들을 초청하오니 평화통일 기도회에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통/일/기/도/주/일

모든 교회들은 3월2일(첫 주일)을 평화통일 기도주일로 지킵시다. 주일예배에 남북평화통일을 위한 특별 합심기도 시간을 갖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2014년 3월 2일(주일) 오후4시
장 소 : 나침반교회(민경엽목사)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전 화 : 562-691-0691

주 최: OC기독교교회협의회, 민주평통OCSD협의회

후 원: OC목사회, OC한인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 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 픽업가능

■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오픈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선교학 박사

하나님이 보신다



김 세 환 목사
LA연합감리교회

보시는데, 혼자서 나쁜 짓 하면 벌 받아요!" 신앙에 있어서는 날방인 줄 알았던 아들놈이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아버지를 꾸짖는 모습을 보니 웃기기도 하고 흐뭇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는 것 같아서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해동소학(海東小學)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혼자 있는 곳에서 자기를 속이지 않는 것(獨處無自欺)"이라고 했습니다. '대학(大學)에서는 이를 '신독(慎獨)'이라고 했습니다. '남이 보지 않는 곳에 혼자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하여 말과 행동을 삼간다'는 뜻입니다.

'공자'나 '울곡'같은 분들은 이를 군자(君子)의 기본 도리라고 했습니다. 굳이 옛 고사나 성인들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는 혼자 있을 때 빠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내 안 어디엔가 숨겨져 있던 생각과 감정이 쏟아져 나옵니다.

혼자있을 때마저 나를 속박시키고 짓누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에 붓물 터지듯이 꼭꼭 숨겨두었던 속마음이 튀어나옵니다. 남의 시선이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교문화권 속에서 살아온 우리들에게는 누구나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만큼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때문에 여지없이 무질서와 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역설적인 말이지만, 사람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제일 쉽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이룰 때 "자아 실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그렇게 실현된 자아는 진정한 자아가 아닙니다. "왜곡된 진아(眞我)"일 뿐입니다. 진정한 자아의 실현은 하나님을 포함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그 분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생각을 분명히 가질 때에만 사람은 혼자 있을 때에도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홀로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신다." 이것을 아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세월에 녹슬지 않은 순수



엄 영 민 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나누어 보면 가슴에 부글부글 끓는 듯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참 귀한 사람이구나!'하는 생각을 했었다. 대학생 시절인줄라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적지 않았지만 엄 목사님은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일 정도로 뜨거웠다. 그러나 우리는 대학을 졸업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다. 가끔씩 그때 그 열정의 젊은이는 어떻게 지낼까 궁금했다. 그렇지만 큰 기대는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 시절 한 때 필 필 끊다가 취직하고 결혼하고 나이 들면서 서서히 식어가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난 해 엄 목사님께서 갑자기 연락이 왔다. 미국 방문길에 우연히 어디선가 내 이름이 적힌 것을 보고 혹시나 해서 연락을 해 보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곤

우리 교회를 방문한 후 식사를 함께 나누었는데 목사님의 모습은 역시나 변했으리라 생각했던 내 예상을 완전히 깼다. 당시 선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자매와 결혼한 목사님은 결혼 후 한국 최고의 직장 중 하나로 꼽히는 한국은행에 사표를 내고 중국 선교사로 나가 지금까지 20여년을 선교에 헌신해 오고 있었다.

20여년 동안 얼마나 그곳 사람들을 사랑하고 헌신했는지 엄 목사님의 모습은 거의 중국사람 같았다. 중국말로 유창했다. 겉모습은 소박했지만 말을 몇 마디 나눠보니 30년 전의 그 열정이 느껴졌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젊은이들을 향해 품었던 그 열정이 이제는 고스란히 중국 사람들을 향해 부어지고 있다는 점뿐이었다.

적지 않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젊은 날의 순수와 열정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있는 그 모습이 고맙고 감사했다. 세상도 빨리 변하고 사람도 시시때때로 변하는 이 시대에 그래도 이런 복음의 사람들이 있구나 싶었다. 복음이란 이렇게 우리를 영원히 순수하고 영원히 가슴이 뜨거운 젊은이로 살게 하는구나 하는 사실이 새롭게 다가왔다. 엄 목사님처럼 여러분과 나의 순수와 열정도 그렇게 세월에 녹슬지 않았으면 좋겠다.

"Show up, Keep up, and Shut up"



제이슨 송 교장
새언약초중고등학교

는 이들과 협력하여 동화하라는 뜻이다. 프로저는 캐디로서 선수와 "Keep up" 해야 했고, 또 선수의 필요를 미리 헤아리고 준비해야 했다. 이점을 적용한다면 우리 모두 소속된 곳, 단체, 그리고 조직에서 최선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이다. "Keep up"을 잘 하려면 먼저 지금 현재 무엇을 왜 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한다. 즉, 목적과 목적을 이루기위한 과정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다. 기억하자. 겸손하지 못하면 배우지 못하며, 배우지 못하면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타인과의 잘 협력해야만 "Keep up" 할 수 있으며, 팀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꼭 리더가 되려고

하지 말자. 자신이 타고난 리더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 남을 섬기며 겸손을 배워야겠다. 그러려면 함께하는 동료와 협력해야하며, 독불장군으로 살아가선 안된다.

셋째, 프로저는 "Shut Up," 즉 입을 다물라고 조언했다. 야고보서엔 사람이 혀를 다스릴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입을 열고 언제 입을 다물어야 하는지 잘 파악해야 한다. 그런데 이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말아야 할 것은, 말은 덜 할수록 실수를 덜 범한다는 점이다. 그러니 말을 적게 하는게 상책이요, 꼭 할 말이 있다면 실천과 행동으로 말하는 것이 더 영향력있다 하겠다.

특히, 남을 비판하는 말을 줄여야겠다. 예수님은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는데, 왜냐하면 비판하는 그대로 우리도 비판 받기 때문이다. 옛말에 남아일인 중천금이라 했고, 말 한 마디로 천냥 빛을 갚는다고도 했다. 그만큼 말은 신중히 해야하며, 소금을 적당히 뿌린듯 필요한 말, 맛을 내는 말만 해야겠다. 잘 Show up 하고, 잘 Keep up 하고, 말을 적게하며 살아보자. 그리고 우리 자녀도 그렇게 살도록 가르쳐 보자.

"목사님, 혹시 몰래 나쁜 짓하지 않으셨습니까?" 엄지발가락에 생긴 극심한 통증 때문에 한잠도 못자고 밤새 고생하다가 이른 아침에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썰렁한 농담을 던집니다. "글쎄요, 제가 뭐 나쁜 짓을 했을까요?" 곱씹히 며칠 동안의 생활을 되짚어보며 무슨 잘못을 했을까 생각에 잠긴 저에게 의사 선생님은 웃으면서 다시 말을 건넵니다. "목사님, 농담입니다. 급성 통풍(Gout)입니다. 아마도 그동안 몸에 축적된 '요산'이 발작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약을 처방받아 절름거리며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아들놈이 아버지가 통풍에 걸렸다는 말을 듣고 근엄한 목소리로 한 마디 던집니다. "아빠! 목사가 몰래 나쁜 짓하면 안 돼요!" 의사와 비슷한 말을 던지는 아들놈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나쁜 짓?" 그러자 아들이 마치 내가 무슨 은밀한 죄를 지은 용의자처럼 의심의 눈초리로 말을 던집니다. "아빠, '가웃(Gout)'은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병이야. 혹시 우리 몰래 술 먹는 것 아니야?"

그제서야 의사와 아들이 던진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재판관 같은 엄숙한 표정으로 눈살을 찌푸리며 아들놈이 한 마디 더 췌기를 박습니다. "아빠, 목사는 잘 살아야해요. 하나님이

지난 주일에는 내 오랜 지인인 엄기호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다. 내가 우리 교회를 섬기는 동안 나와서 개인적인 친분으로 우리 교회 강단에서는 분은 엄 목사님이 처음이시다. 엄 목사님과 같은 성을 가진 흔치 않은 종씨 목사님이기도 하지만 솔직히 엄 목사님이나 나나 종씨라는 혈연에 별다른 의미를 두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엄 목사님은 오래전 대학시절 UBF라는 대학생 선교회에서 만난 인연이 크다.

그 때 이후로 사실은 근 30년 간 서로 연락도 없이 지내온 분이기도 하다. 다만 그 때 내가 엄 목사님에게서 받았던 인상이 너무나 좋았고 30년 후인 작년에 뜻밖에 엄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와 만나 된 후 30년 전의 순수와 열정이 여전히 변함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아 복음에 대한 그 변함없는 열정을 우리 성도들과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모시게 된 것이었다. 대학시절, 아는 친구의 소개로 UBF라는 대학생 선교회에 처음 참가하게 되었었는데 엄 목사님은 그 곳에서 이미 열심히 섬기고 있는 간사였다. 나이는 나보다 조금 어리셨지만 복음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고 그 열심으로 같은 또래의 대학생들을 열심히 전도하고 있었다. 20대 초반의 깨끗한 얼굴에는 언제나 웃음이 가득했고 조금 이야기를

최경주 프로골퍼가 우승을 가장 많이했던 2005-2008년 시절, 그의 캐디, "앤디 프로저"는 경험이 풍부했던 노장이었다. 프로저는 최경주의 가방을 메기 전 풀린 몽코메리의 캐디로도 활약했고 "캐디의 명예의 전당" 멤버로도 선정되었다. 그는 자신의 커리어를 돌아보며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다: "Show up, keep up, and shut up."

첫째, "Show up"이란 무슨 일을 하든지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최선을 다해야함을 의미한다. 사람은 살아가며 "Show up" 해야 할 때와 장소, 그리고 만남이 많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갖고 "Show up"하는가이다. 어떤 이는 내키지 않는 마음, 그리고 마치 못해 하고, 그러기하면 어떤 이는 열정과 기쁨, 그리고 헌신된 마음을 갖고 "Show up"한다. 기억하자. 어떤 태도와 자세, 그리고 마음가짐을 갖고 "Show up"하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자. 우리의 모습이 만나는 모든 이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는 것을 잊지말자.

둘째, 프로저는 "Keep up," 즉 뒤에 처지지 말라고 조언했다. 일단 어떤 일에 참여했다면 최선을 다하고, 함께 하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FTB,SBOE,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TC)
- 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소셜연금,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담임목사 청빙

미국장로교단(PCUSA) 소속으로 미국인회중, 라티노회중과 함께 사역하는 파사데나 장로교회는 다음 세대를 지향하며 다문화목회에 소명이 있는 한인회중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지원자격>

- 다문화 사역을 이해하고 비전을 가진 분
- 다음 세대를 지향하는 목회자
- 한국어와 영어로 설교가 가능한 분
- 3년 이상 목회 경험자(부목사 경력 포함)
- 정규 신학대학원 (M. Div. 이상) 졸업한 분
- 미국장로교단(PCUSA)에 소속되어 있거나 소속목사가 되기에 걸격 사유가 없는 분

<제출서류>

- 이력서(한글,영문)
- 자기 소개서(한글,영문)
- 최근 설교파일(음성 혹은 동영상) 2개이상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은 <http://www.weppc.net>에서 다운 받으십시오. 등록과 접수 절차도 동일한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는 이메일로만 접수합니다. 용량이 큰 설교 파일이라면 Hightail 등의 대용량 파일 전송 사이트를 이용해 보내주십시오

<제출 기간> 2014년 2월 28일(금)까지
<제 출 처> weppcsearch@gmail.com

파사데나 장로교회 청빙위원회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크리스천을 위한

“오바마케어” 별금면제

기독교의료상조회에 가입하시면 Religious Exemption (종교 별금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좋습니다.

- 소득 때문에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적게 받거나 받지 못하는 분
- 신분 때문에 정부로부터 오바마케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분
- 신앙적인 이유로 오바마케어 가입을 원치 않는 분

크리스천 플랜 가입시
꼭 확인할 사항 2가지
1. 건강검진이 제공되나요?
2. \$500이하의 적은
의료비도 지원되나요?

월회비

	골드플러스	골드	실버	브론즈
1인	\$175	\$135	\$80	\$40
2인	\$325	\$260	\$160	\$80
3인이상	\$425	\$385	\$240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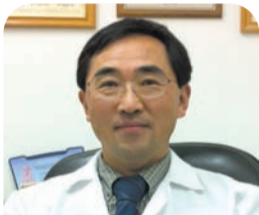
소득, 신분, 나이와 상관없이 가격이 동일합니다.

- ▶ 많은 의사와 병원 사용 가능
- ▶ 한국과 선교지 등 전세계 모든 지역에서 사용 가능
- ▶ 매년 건강검진 제공 (골드플러스)
- ▶ 의사방문, 검사, 처방약, 응급실, 입원, 수술비 지원 (골드플러스 / 골드)
- ▶ 임신 / 출산 지원
- ▶ 완벽한 한국어 서비스

각 지역 최고의 의료진이 함께 합니다.



차민영내과
213-480-7770
520 S. Virgil Ave, #103
Los Angeles, CA 90020



한경모내과
213-387-7800
2681 W. Olympic Blvd, #221
Los Angeles, CA 90006



조지인 가정주치의
213-380-8202
500 S. Virgil Ave., #501
Los Angeles, CA 90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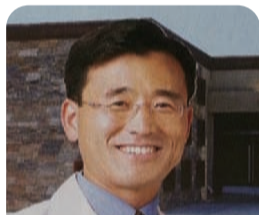
강수웅내과
562-868-6256
11832 Rosecrans Ave #127
Norwalk, CA 90650



백성렬내과
909-839-0455
20627 Golden Springs Dr #2D
Diamond Bar, CA 91789



**오문목 가정의학과
비뇨기과**
949-552-8217
3500 Barranca Pkwy #330
Irvine, CA 92606



조셉메디칼그룹
714-739-4325
6261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이선우류마티스내과/
이효량위장내과**
323-938-0006
4465 Wilshire Blvd #303
Los Angeles, CA 90010



안우성내과
562-916-5020
20145 S Pioneer Blvd
Lakewood, CA 90715



유원계 위장내과
714-937-9400
230 S Main St.
Orange, CA 92868

차할리우드장로병원은 한인 사회와 기독교의료상조회
회원들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차할리우드 장로병원
더 나은 시설에서
더 나은 서비스로
더 나은 경험을 드립니다.

**434베드 규모의
최초 한인 운영 종합병원**

- 한국 CHA병원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고의 시설 및 장비 보유
- 분야별 최고 권위의 한인 전문의
- 아시아인 환자 전문 병동 및 다수의 한인 간호사 상주

888-522-3455 (대표전화)
323-913-4900 (한국어안내)
1300 N.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27



가입문의

213-700-9121

CMM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보험회사가 아니며, 비영리 Health Care Sharing Ministry (의료비분담사역) 단체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 나라’ 관점 회복 위한 내부 개혁운동”

선교는 사역 중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시는 것

1990년대 후반 북미에서 처음 제시된 ‘선교적 교회’ 개념은 쇠퇴의 길을 걷고 있는 북미 기독교공동체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 소개돼 5~6년 전부터 알려지기 시작했으나 아직까지 필요성과 당위성, 방향을 논하기에 앞서 개념조차 생소한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여기서 말하는 선교, 교회 등의 용어에 대한 인식 전환과 개념 정립부터 요청된다. 한국교회의 시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선교적 교회’의 개념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소개하기 위해 ‘선교적 교회와 하나님 나라 선교’에 대한 기획을 연재한다.

- 편집자주 -

척선교(Frontier Mission) 가운데서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 지금은 포스트-포스트모던주의 시대

김 선교사는 ‘선교적 교회론’에 대한 설명에 앞서 시대의 흐름을 짚어 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세 암흑의 시대를 벗어나면서 인간의 이성의 빛에 의존하는 계몽주의 시대엔 미신, 미개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개화’에 역점을 둔 계몽주의 사상의 흐름이 있었다”며 “이에 사람들은 삶의 모든 영역을 조직화, 체계화, 근대화하는 ‘절대적 구조’ 및 성장 지향주의를 갖게 됐고 이는 모더니즘의 근간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1, 2차 세계대전 이후 인간의 이성에 대한 절대적 신뢰에 균열이 일어났고, 상대주의와 불확실주의가 기초가 되면서 포스트모더니즘이 발현했다”고 설명했다.

김 선교사는 “계몽주의는 사실상 제국주의와 함께 소위 기독교왕국(Christendom)이라 할 수 있는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 국가들의 식민지 확장시대와 맥을 같이 했다.”

그 마지막 단계에 공산제국주의가 자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데이빗 보쉬(David Bosch)나 필립 켄킨스(Philip Jenkins) 같은 학자들이 이런 시대의 결정적 변화들에 대해 잘 기술했다며 “우리는 이러한 시대의



선교 컨퍼런스 장면

흐름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시대 변화와 사람들의 사고를 담은 문화를 결정적으로 사용한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대는 더욱 짧은 주기로 바뀌어 포스트-포스트모던 시대에 들어섰다고 그는 주장했다.

김 선교사는 “전 지구는 하나의 경제권이 되어 나라 구별 없이 이윤 추구나 더 나은 삶을 찾아 고향을 떠나는 신유목민(New Nomadic) 시대가 되었으며, 정보, 통신, 교통 발달의 가속화로 본격적인 글로벌 시대에 접어들었다”면서 “폴 히버트(Paul Hiebert)는 이를 포스트-포스트모던 시대라고 일컫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의 간격도 세분화되고 다양해졌고, 좁아진 지구 환경에서 다양한 문화가 섞여 공존하거나 새로운 마이크로 동

질집단(Homogeneous Unit)들이 등장하는 것도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현상이 마치 초대교회 당시의 좁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이방 문화가 공존하면서도 그리스-로마 제국이라는 하나의 문화와 영향력을 공유하던 시대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 크리스텐덤 교회론에서 선교적 교회론으로의 전환

김요한 선교사는 기독교 세계를 말하는 크리스텐덤에 대해 “간략하게 정의하면 서구 크리스천들이 ‘주 문화’를 지배한 구조적인 기독교의 전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필립 켄킨스는 서구권 또는 북반구 중심의 기독교를 크리스텐덤이라 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 비서구권 또는 남반구 중심의 기독교를 포스트-크리스텐덤으로 분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위키피디아에서 크리스텐덤은 전 세계적 그리스도인 공동체, 또는 기독교 지배적 문화 및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나라를 지칭한다.

그는 “그러나 교회론 관점에서 좀더 좁은 의미의 크리스텐덤은, AD 313년 콘스탄틴의 기독교 공인 이후 국교화, 제도화되면서 명목상(Nominal) 신자들을 양산하게 된 기독교에 대한 총칭으로 사용한다.”

또 문화적 관점에서는 ‘전 세계에 걸친 그리스도인 공동체 및 기독교에 속한 사람’을 일컫고, 역사적 관점에서는 보통 ‘기독교 세계가 이교주의, 무슬림의 위협 가운데 지정학적 힘을 나타냈던 중세 및 근대를 지칭’하

는 말로 사용된다.

또 단순히 기독교 다수 국가나 기독교가 국교이거나 지배적인 나라를 지칭하기도 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크리스텐덤 교회론에서 선교적 교회론으로의 전환을 설명하기에 앞서 요즘 한창 유행하는 선교적 교회론에서 언급된 ‘교회’의 의미를 소개했다.

선교적 교회론을 소개하는 대표적 홈페이지(www.friendofmissional.org)에서는 여기서 교회가 건물이나 교파, 물리적 위치가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 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증인을 삼기 위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한다.

김 선교사는 “사실 교회가 본질적으로 건물이나 예수 신앙 공동체인 것을 누가 모르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그럼에도 우리가 교회를 개혁한다고 할 때 자신도 모르게 신앙 공동체보다 먼저 건물을 떠올리는 왜곡된 교회론을 갖게 된 것은 크리스텐덤 구조주의의 폐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교적 교회는 이런 크리스텐덤 교회론의 한계와 서구 기독교의 쇠락 상황에서 시대적, 문화적 패러다임 변화와 각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다는 것이다.

그는 “선교적 교회가 전세계적인 이슈가 된 것에는 에큐메니칼의 프린스턴 학자들이 저술한 ‘선교적 교회’가 기폭제가 됐지만, 이에 근본적 영향을 끼친 학자는 데이빗 보쉬나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이었다”고 말했다.

김 선교사는 “이들이 한 일은 에큐메니칼 진영의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와 레슬리 뉴비긴의 선교적 통찰력을 참조하여 토마스 쿤(Thomas Khun)이 말한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 교회의 위기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선교는 교회가 감당하는 여러 사역 중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시는 것”이라며 “교회에 속한 선교들(missions)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께 속한 인류를 구속하는 하나님의 선교(mission)”라고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대행자(agent)로서 이 땅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지희 기자

“비전과 일은 진정한 선교사를 만든다”

북미주예수대각성운동(JAMA) 대표 김춘근 박사가 최근 서초 사랑의교회 새성전에서 열린 전국기독교수련회(전기연) 창립 25주년 기념 기도모임에서 특별 강연을 전했다. 사랑의교회 교수선교회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회원 교수 및 PAUA(범아시아·아프리카대학협의회) 소속 해외 기독교대학 교수, 지역교회 목회자, 캠퍼스 사역자 등 2백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환상을 보라’는 주제로 신앙 간증과 사역 소개를 한 김 박사는 “미국 사람들의 꿈인 ‘야망(ambition)’은 모든 동기와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고, 자신의 영광을 위하지만, 하나님의 꿈인 ‘비전(vision)’은 이와 다르다”며 “모든 동기와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비전의 사람, 믿음이 사람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이 없는 비전은 공상가를 만들고, 비전 없는 일은 고역이다”며 “비전과 일은 진정한 선교사를 만든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비전은 꿈과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말씀, 설교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다”며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금식과 기도, 찬양과 경배, 회개와 변혁 등 다양한 방법을 제안했다. 그는 또 “비전은 고상한 장기 목표”라며 “제 평생 비전은 하나님의 사람, 사랑과 믿음의 사람, 열정과 헌신의 사람,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

고 말했다.

김 교수는 “1985년 정초 기도하는 중 ‘미국을 신앙으로 위대하게 만들라’는 비전과 사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JAMA를 통해 영적으로 타락한 미국을 청교도 신앙으로 회복시키고, 무너진 신앙과 도덕성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한인 1.5세, 2세가 미국 주류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미국 청년 리더와 손을 잡고 미국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보고 한인 청년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리더로 훈련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기연 총무 지준형 국민대 교수(인문정보학)는 캠퍼스 복음화와 관련된 기관과의 연합, 해외 기독교대학 지원 등 전기연 사역을 소개하며 “이러한 사역을 하려면 먼저 우리 마음이 성령 충만하고 기본적인 신앙관이 바로 서야 한다”며 “개강을 앞두고 캠퍼스에 부름 받은 일종의 선교사로서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말했다.

전국 3백여 기독교 교수들이 연합한 전기연은 1987년 성경공부 모임을 시작으로 1988년부터 매년 교수 수련회를 개최해 왔다. 2009년부터는 포럼 및 성경공부를 정기적으로 열면서 기독교 교수의 사명을 올바로 인식시키고 대학교회 설립, 소그룹 모임 활성화 등에 주력하고 있다.

이지희 기자

초기 이민자 봉사센터

미국 생활에 어렵고 답답한 것들이 있습니까?
한미 법률센터(초기 이민자 봉사센터)에서
전문 변호사 및 법무사, 세무사, 유학 전문가가 교민들을 위해
횡수에 제한없이 무료 상담을 해드리니 부담없이 이용바랍니다.

- 유학생(ESL 포함)전학 및 체류신분 변경
- 유학생의 학교생활 고민 상담(어려운점 및 문제점)
- 영주권 신청, F-1(학생), E-2(소액투자), R-1(종교)및 종교이민
- 아파트 분쟁
- 소액재판
- 민사소송
- 이혼
- 법인 설립
- 재정 보증
- TAX & Accounting (세금 절약 방법 안내)

이민국 서류 거절시 수수료 전액을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www.migukguide.com

migukguide@gmail.com

문의: 213)272-7498

1300 W Olympic Blvd. #202 Los Angeles, CA 90015 (Olympic + Union에서 동쪽으로 4블럭)

세계 최초의 캐거 미국 FDA에 의약품으로 인증 등록됨 일반 의약품 등록 번호(NDC No: 58912-2001)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천연 치료제 개발

Medical Product Name : Mirapharm-22
FDA NDC Number : 58912-2001-1

Duns Number : 688502046
Pin Number : cGfFh5Ec

위 정보들은 미국 FDA로 부터 정식으로 부여받은 것들로
제품 제조허가 번호, 제품명, 국제사업자 등록번호와 공장 설립허가 번호들입니다.

이로써 2013년 6월 12일 미라팜-22는 100% 천연물질이면서도 식품테스트에서 안전성이
인증되어 기능성 건강식품으로 인증서를 받았고, 그 이후 2013년 8월 1일에 미국 일반 의약품(NDC(OTC
DRUG))으로 승인되어 OTC DRUG로서의 인증서를 받아 정식으로 미국 일반 의약품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이와 동시에 약품 제조허가번호와 공장 설립허가번호 그리고 국제적으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국제사업자등록번호까지 획득해 합법적으로 제조와 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약 (Miracle Pharmacy) 미라팜-22 Mirapharm-22



Made in USA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예방 및 치료약,
각종 질병 예방 및
치료약**



90캡슐 / 한달 분 / 한 병

22세기형 최첨단 신약으로 탄생했습니다.

100% 천연 유기물질로 만들었으며
24년간의 연구와 임상을 거쳐
효과는 확실히 검증이 되었고 부작용의 염려가 없습니다.

- ◆ 14년간의 연구와 10년간의 임상 끝에 100% 천연 물질이면서 의약품으로 인증 받은 미라팜-22
- ◆ FDA에서 본 제품의 독성 및 기타 성분 분석 검사 결과, 영양 함유물 및 식품으로 안전하다고 인증됨
- ◆ 미국 FDA에 의해 각종 암, 난치병, 아토피 등 면역 결핍에 의한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약 등록
- ◆ 친환경 천연유기물질을 생명공학 공법으로 가공한 차세대 신개념의 면역 증강, 각종 질병 치료제
- ◆ 100% 천연유기물질 소재로 만들었기에 부작용의 염려가 없고 각종 난치병에도 많은 효험을 나타냄
- ◆ 어떤 면역증강 건강보조식품보다 월등히 뛰어나며 일반의약품(OTC Drug)으로 인증받은 첨단 의약품

갑상선 말기암 환자의 최근 체험사례



복용후 5일 - 11/5/2013 복용후 25일 - 11/25/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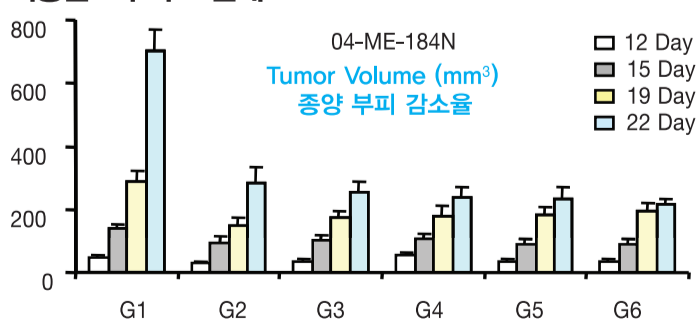
생후 5개월부터 28년된 아토피 환자의 치료 사례



복용전 복용후 99일

미라팜-22의 암 예방 및 치료제에 대한 전임상 테스트 확인 도표

최종일 - 투여 22일째



군 (mg/kg)	Control 무치료	Doxorubisin (2) 화학항암제	Mirapharm-22 (75) 미라팜-22	Mirapharm-22 (150) 미라팜-22	Mirapharm-22 (300) 미라팜-22	Mirapharm-22 (300) 사전 예방처리
22일 째 (최종일)	704.6 ±67.2	285.6 ±50.6	251.9 ±36.3	235.3 ±34.6	232.1 ±38.5	214.2 ±20.5
22일째의 억제율 %	0	59.5	64.3	66.6	67.1	69.6
	G 1	G 2	G 3	G 4	G 5	G 6

키모테라피에 사용하는 화학요법 항암제보다 월등히 우수한 암 부위 감소율을 자랑하는 천연 치료제인 미라팜-22의 임상 결과에 대한 논문은 곧 학술지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HQ 헬스 / HQ 바이오텍, INC.

833 S. Western Ave. #1, L.A., CA 90005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美성공회 수좌주교 신학교 방문에 이사진 항의

친동성에 정책과 교회 대상 법적 소송에 반발 표시

미국성공회 내에 동성애와 관련한 갈등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사건이 최근 발생했다. 미국성공회 수장인 캐서린 제퍼츠 셔리(Katharine Jefferts Schori) 수좌주교는 위스콘신 주의 성공회-가톨릭 신학교 나쇼타 하우스(Nashotah House)를 에드워드 셀먼 학장의 초대로 오는 5월 1일 방문해 채플에서 설교를 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소식을 접하게 된 이 학교 이사진들이 셔리 주교의 방문에 격렬히 항의하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중 한 명은 사임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텍사스 주 포트워스 교구의 잭 아이커 주교는 “나는 셔리 주교를 영예로운 자리에 초청하는 기관과는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며 이사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같은 극단적 반응은 셔리 주교를 위시한 미국성공회 지도부와 교단

내 보수 지도자들 간의 동성애 문제에 둘러싼 갈등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보고 있다.

셔리 주교는 세계성공회와 미국성공회 내 보수 지도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를 주교로 임명하고 사제들이 동성결혼식을 집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 왔다. 이에 반발해 일부 교회들은 신학적 차이를 지적하며 셔리 주교의 지도권 아래 있기를 거부하고 교단을 탈퇴하기에 이르렀다. 이 교회들은 미국성공회가 “성경의 권위로부터 멀어



캐서린 제퍼츠 셔리

지고 전통적인 성공회 신앙을 저버렸다”며 실망을 드러내 왔다. 더불어 이들 교회들과 교단 간의 재산 분쟁 가운데 셔리 주교는 지난 수년간 법적 소송을 진행해 왔으며 이에 많은 보수 지도자들이 반감을 표해 왔다. 아이커 주교 역시 이 같은 미국성공회 지도부의 정책을 비판해 온 보수 지도자 중 한 명으로 셔리 주교의 방문 소식에 사임을 선언하는 것으로 자신의 항의를 명백히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이사로 같은 포트워스 교구에 소속된 윌리엄 윈틀랜드 주교도 “앞으로 나쇼타 하우스에서 어떤 역할도 맡지 않을 것이라고 학교측에 통보를 보냈다”며, “또한 학교측의 현재 임원진들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어떤 재정적 지원도 하지 않겠다”고 포고했다. 마찬가지로 이사진을 구성하고 있는 북미성공회의 로버트 던컨 대주교

역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는(셔리 주교를 초대한 것은) 학교의 미래를 위협하는 비극적이고 지혜롭지 못한 결정이다”고까지 언급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셀먼 학장은 이번 셔리 주교의 초청은 학생들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밝히고, “신학교는 교회의 소속보다는 신실한 사제들과 평신도들을 육성하는 본연의 사명에 충실한 곳이 되어야 한다”고 논란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우리는 선대들이 그러했듯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에 신실한 신자이자 분열된 세상과 분열된 교회에 화해의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셔리 주교의 신학교 방문이 거센 항의에 부딪히는 다른 이유는 과거 주교가 한 비성서적 발언들에 있기도 하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셔리 주교는 2006년 수좌주

교에 임명됐을 당시 “우리의 어머니 예수께서 새로운 피조물에 생명을 주셨으며 여러분들과 내가 그분의 자녀들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2009년 총회에서는 “가장 큰 서구의 이단적 사상은 우리가 개인으로서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들 중 누구라도 혼자서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다”고 말하는가 하면 2013년에는 “바울이 귀신들린 노예 소녀를 고친 것은 잘못된 일이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성공회 불로거인 새라 헤이는 이에 셔리 주교를 초대할 일을 두고 “이처럼 끔찍한 결정이 가져오게 될 영향으로부터 나쇼타 하우스가 과연 회복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셔리 주교는 가장 이단적인 교사이자 사제이며 악의에 가득찬 소송 애호가”라고 비난했다. 손현정 기자

“성별에 따른 불평등, 제약은 세상의 깨어진 모습”

인디애나그레이스교회, 여성 리더십의 제약 풀어

인디애나 노블스빌에 위치한 8천 명에서 1만 명 규모의 그레이스교회(Grace Church)가 여성의 리더십에 관한 태도를 바꾼 데 대해 여러 매체들로부터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이 교회의 공식적인 성명서가 발표되기 전, 이 교회와의 간단한 인터뷰를 보도했다. 18일, 그레이스교회의 멜로디 보이어(Melody Boyer) 커뮤니케이션 목사는 “이 교회가 취하는 새로운 자세를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에 우리는 지금 바로 이에 대해 발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이어는 성도들을 위해 민감한 변화에 관한 여러 사항들에 대해 언급하기를 꺼렸으나, 이전까지는 여성에게 담임목사나 장로의 직위를 맡기는 것 및 주일예배 설교를 금지했다고 밝혔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장로와 담임목사 직위를 포함해 여성의 리더십에 두는 제약을 모두 없애길 원했다”고 설명했다.

오랫동안 고수해 온 여성 리더십에 대한 3가지 제한 중 2을 해제한 가운데, 이 교회는 장로직에 성적인 차별을 없애기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 사안은 교인들의 투표로 결정될 것이다. 지금까지 그레이스교회의 지도자들은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끄는 데 성별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으셨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오랜 시간에 걸쳐 가르쳐왔다.

행정을 담당하는 크리스 쇼어(Chris Shore) 목사는 “간단히 결정한 사안이 아니다. 이 결정을 내리기 위해 심혈

을 기울여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분별력을 구했다”고 전했다. 쇼어는 이달 초 다른 목사들 및 사역자 회 구성원들과 함께 가정구조 및 성역할에 관한 “2월 특별 시리즈”의 하나로 그레이스교회의 “성경과 영적 분별에 대한 접근”을 설명하기 위해 강단에 섰다.

1961년 600명의 교인으로 설립된 그레이스교회는 모든 사역의 분야들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 따르도록 도전을 주며 깨어진 세상(broken world)를 치유하려 한 그리스도의 갈망을 반영한 삶을 사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다. 2월 9일 그레이스교회의 새로운 교육시리즈의 두번째 파트를 설교한 팀 에이어스(Tim Ayers) 교육목사는 세상의 깨어진 모습 “성별에 따른 공평과 존엄의 불균형”을 통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사역자와 목사들은 하나님의 사람에 관한 리더십과 관련된 모든 성경 구절들을 철저히 연구했다. 그들은 하나님이 최우선에 의도하신 바에 대해, 세상의 깨어진 것과 이 깨어진 것을 고치려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고민했다. 또 그들은 교회의 사명은 타락으로 인해 깨어진 세상을 고치고 하나님께서 최초로 바라셨던 그의 나라와 닮게 이 세상을 회복하는 것이라 단언했다. 그들은 이 깨어진 모습 중 하나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존재하는 불공평이라고 결론지었다.” 에이어스는 “이 결정은 파멸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최우선에 사람들을 지으신 바에 가까이 다가

가는 것이다. 성경 전체를 심각하게 보고 내린 결정이며, 이 결정은 타락한 세계 구조와 맞선다”고 주장했다.

그레이스교회의 교육 목사는 “디모데 1장의 주제는 능력과 인격에 관한 것”이라며 “바울에 따르면 인종, 계급, 성별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최고의 사람이 필요하다”며 그는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준 인격적 자질을 만족시키는 자, 말씀을 아는 자, 하나님께 순종해 걸음을 내딛는 자, 기도의 삶을 사는 자”라고 말했다. 에이어스는 여성 리더십의 제약을 해제하기로한 이 교회의 결정은 문화를 따른 “절충안”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 보다는 세상에 구원과 소망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돕기 위한 그레이스 교회의 노력의 한 결과물이다.

미국 내 개리교, 성공회와 장로교 등 주류 교단은 여성에게 모든 직위의 리더십을 허용하나, 개신교인들은 이에 대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특정 교단에 속하지 않은 그레이스교회는 현재 미국 복음주의교회로부터 분리하는 과정 중에 있다. 또 올해 초 이 교회는 칼빈주의 목사 존 맥아더(John MacArthur)가 사무하는 캘리포니아 샌 밸리의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를 비롯해 미 전역 도처에 존재하는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Grace Community Church)로부터 자신을 구별짓기 위해 교회 명칭에서 커뮤니티를 제거했다. 남성이 교회 내 리더가



팀 에이어스 목사.

분은 남성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여성은 일절 순종함으로 주께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주께 순종할찌니라(딤후 2:11-12)” 또,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후며”라고 창세기 창조기사를 설명한다. 또한, 타락에 대해 “아담이 죄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죄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딤후 2:14)”라고 적었다. 몇몇 크리스천들은 또 디도서, 고린도전서와 그 밖의 다른 구절에서도 여성이 목회 및 남성성을 주관하는 지위에 대해 제한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한다.

2012년 미국내 크리스천 여성에 관한 관점에 관한 바나 그룹의 조사에서 설문자의 84퍼센트가 완전히 혹은 거의 자신의 리더적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답했으나 16퍼센트는 성별에 따른 제약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더 나아가, 여성에게 더 많은 리더십의 기회를 주기 위해 자신의 교회의 남성

리더들이 성별에 따른 역할과 구조를 바꾸려 한다고 답한 비율은 47퍼센트에 그쳤으나 78퍼센트의 여성들은 성경이 여성들이 교회 내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바나그룹의 조사에 1년 앞선 퓨리서치(Pew Research)의 조사에 따르면, 전세계 복음주의 크리스천 리더의 75퍼센트는 여성의 목회직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으나, 북미 지역 리더들은 19퍼센트에 그쳤다. ‘성경적 남성성과 여성성에 관한 협의회(the Council on Biblical Manhood and Womanhood)’는 개신교 여성 목회자가 증가했다는 2009년 바나 그룹의 조사 결과를 미국 교회가 쇠퇴하는 증거로 지적하며, “여성 목회자를 받아들이는 교회는 성서와 멀어져 문화와 타협하며 성별 문제를 자유주의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디애나폴리스 대학의 제레미야 깁스(Jeremiah Gibbs) 교목은 그레이스교회의 여성 역할의 변화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그는 그레이스교회의 결정을 “용감하다”고 평하며 크리스천 포스트에 “매우 존경스러운” 이 교회가 더 위대한 기독교 공동체를 위해 흐름을 바꿔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깁스는 여성 목회자가 이끄는 인디애나폴리스의 감리교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며 그의 아내는 이 교회의 부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그는 그레이스교회의 결정이 “아내에게 매우 용기를 주며 사역하는 많은 여성들에게 용기를 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주디 한 기자

www.sejongbiotech.us

KFDA, GMP, HACCP

국립보건연구원으로부터 품질인증 받았습니다.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세종바이오
SEJONGBIOTECH, INC.

“장미캡슐로 여성건강을 지키세요”

40대의 불균형, 50대의 갱년기, 60대 이상 모든 여성들이 겪는 혹독한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은 가히 전쟁과 같다고 합니다. 갱년기 우울증, 발한, 안면홍조, 가슴두근, 노화 등을 걱정하는 이시대 중년여성에게 드리는 곳 뉴스~~~

여성 위한 필수영양소

특별공급

2개월분 한박스 - 210봉

장미오일 건강기능식품

퍼스트레이디

달맞이꽃종자유 함유로 여성의 생리환경개선 • 식약처(KFDA) 공인 건강기능식품 • 불가리안 장미에센셜오일의 강력한 진정작용, 향산화작용 • 캡슐하나에 장미 2500송이 농축 •

■ 주요성분 불가리안 장미에센셜, 달맞이꽃 감마리놀렌산, 비타민E

■ 효능

- 🌸 퍼스트레이디에는 여성을 위한 필수영양소, 감마리놀렌산이 풍부합니다.
- 🌸 퍼스트레이디에는 불가리안 장미오일 에센셜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 🌸 퍼스트레이디 복용후 3개월이 지나면 장미체취로 변화된 모습을 느낍니다.

“30년 농약검출-비소도량”로 여성을 위협합니다!”

세종바이오의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

보통

세종 송보감

“춤추는 당도를 잡아라”
“마인 힐란을 풀어라”

뇌보감 골드

“치매예방, 뇌출중예방”
“기억력을 개선합니다”

高麗 발효삼

“항암 효과, 기력향상, 원기회복”
“고려대학교, 맥스 생명연구 개발”

세종 요로정보감

“요실금, 오줌소태 개선”
“전립선건강에 탁월한 효능”

Sejongbiotech, Inc.

세종바이오

www.sejongbiotech.us

703-256-7671

7360 McWhorter Place #200 Annandale VA 22003

오픈스튜어드십 3차 청지기 프로그램 수혜단체 명단 발표

총 73개 단체에 37만 4천2백 불 지원

미주 한인사회 및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청지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오픈스튜어드십 재단(Open Stewardship Foundation)은, 작년 11월, 12월 두 달에 걸쳐 총 84개 단체의 응모를 받아 올해 1월부터 두달간 재단 내부의 심사를 거쳐 73개 단체를 선정했다.

이번 제 3차 “청지기 프로그램”에 선정된 단체는 소망 프로그램(3천 불) 9개 단체, 믿음 프로그램(7천 불) 21개 단체, 사랑 프로그램(1만 불) 33개 단체, 그리고 새로 추가된 은혜 프로그램(3천 불) 10개 단체다.

지난해 총 수혜금액은 37만 4천2백 불이다. 이번 심사때는 1.2차 때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춰 지

역사회의 소외된 이들을 섬기는 단체 중 정직과 성실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이번 프로그램 지원금 수여식은 3월 20일 오후 6시 오픈뱅크 본사 건물 8층에서 진행된다.

2011년 오픈뱅크가 설립한 비영리 단체인 오픈스튜어드십 재단은 청지기 프로그램을 통해 수익의 10퍼센트를 지역사회에 매년 환원하고 있다. 2011년 1차 청지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48개 단체에 총 18만 3천 불을 지원했고 2차 때는 52개 단체에 23만 4천 불을 전달했다.

은행 설립시 매년 수익의 10%를 지역사회에 환원한다고 공표한 오픈뱅크는 매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디 한 기자

신앙인들, 동성결혼식 위해 일하지 않을 권리 있다

미국 복음주의 지도자, 일련의 소송들에 견해 전해

미국에서 동성결혼식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거절한 기독교인들이 법정 소송에 휘말리는 위험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복음주의 지도자가 “신앙인들은 동성결혼식을 위해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이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미국 최대 교단인 남침례교(SBC) 윤리와종교자유위원회(ERLC) 수장인 러셀 무어(Russell D. Moore) 목사는 최근 발표한 칼럼 ‘결혼식과 신앙양심: 기독교인들은 위선자들인가?’(On Weddings and Conscience: Are Christians Hypocrites?)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적 양심에 따라서 동성결혼을 기념하는 일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어 목사의 칼럼은 최근 현지 일간인 ‘더 데일리 비스트(The Daily Beast)’가 “다른 비성경적인 결혼식들을 위해서는 사진을 찍으면서 동성결혼식에서는 사진을 찍지 않을 거라면 모든 결혼식

에서 일하는 것을 거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선자로 보이게 될 것이고 기독교인으로서 복음에 누를 끼치게 될 것이다”고 주장하는 글을 실은 데 대한 답변이기도 하다. 앞서 무어 목사는 또다른 칼럼에서 기독교인 사진사에게 “동성결혼식을 촬영하는 것을 정중히 거절하는 것이 옳다”고 조언하면서, “다른 결혼식의 경우에는 따로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고 쓴 바 있다.

이에 ‘더 데일리 비스트’는 성경에 제시된 비성경적 결혼에 대한 다른 예들을 들면서, “기독교인들은 동성결혼식뿐 아니라 다른 결혼식도 미래의 신앙 신부들이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거라면 결혼식을 위해 일하는 것 자체를 관두어야 한다”고 비꼬는 것이다. 무어 목사는 이 같은 도발에 “기독교인 사진사에게 다른 결혼식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가 결혼하려 하는 커플에 관해서 조

사하거나 알아볼 권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그가 사적으로 조사를 고용해서 결혼할 사람들의 법적 서류들을 점검해 볼 수 없는 것이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러나 무어 목사는 동성결혼식의 경우는 이와 달리 “명백하게 잘못되었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누구이든지 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남자와 남자, 그리고 여자와 여자의 성적 결합은 그 어느 경우에도 도덕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어 목사는 ‘더 데일리 비스트’처럼 세상이 성경의 성윤리와 교회 역사를 동원해서 기독교인들을 ‘위선자들’로 몰아가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나라가 법적으로 신앙인들이 자신들의 재능을 죄책이라고 생각되는 결혼식을 위해서 쓰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앞으로 이 나라의 법정에서 종교적 양심이 어떻게 보호될 수 있는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현정 기자

영화 ‘노아’, 상상력은 어느 정도 허용되어야 하는가

노아, 격렬함과 맹목성 지닌 인물로 묘사돼, 크리스천 관객들 반대

대런 아로노프스키(Darren Aronofski) 감독의 영화 “노아(Noah)”의 시사회 이후, 크리스천 관객들은 이 블랙 스완(Black Swan)의 감독이 이 창세기 인물을 묘사한 방식에 반대했다. 초기예산 125백만 불이 투입돼 아로노프스키의 영화 중 가장 비싼 영화가 된 “노아”는 작년 파라마운트 영화사(Paramount Pictures)의 압력으로 감독의 의도와는 달리 몇 가지 다른 버전으로 시뮬 상연됐다.



영화 ‘노아’의 한 장면.

아로노프스키는 미국 연예잡지 할리우드리포터(The Hollywood Reporter)에 “매우 화가 났다. 아무도 나에게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할리우드리포터에 따르면, “노아”를 본 크리스천 관객들은 이 영화가 성경 이야기에 충실하지 의심스러웠으며 주인공의 맹목성과 격렬함에 대해 부정적인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유대인인 이 감독은 같은 유대인 동료인 아리 핸델(Ari Handel)과 함께 이 스토리를 기획했다. 이 팀은 여러 개의 팔을 지닌 타락한 천사나 상상속의 동물들 그려내는 등 영화를 위해 상상력을 끌어 모았다.

첫 시사회의 이 같은 반응에도, 독실한 크리스천인, 파라마운트 영화사의 롭 무어(Rob Moore) 부회장은 “거의 대다수의 크리스천 공동체는 이 영화를 받아들일 것”이라 예상한다. 그는 “이 영화의 핵심 주제는 창세기의 노아 이야기 즉 믿음과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약속”이라고 주장했다. 무어는 아로노프스키의 상상이 더해진 부분에 대해 창세기에서 노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부분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변호했다. 무어는 “스토리텔링의 관점에서 중요한 점은 노아가 하나님의 선택 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으며, 방주를 지어라는 명령을 받았고, 방주를 지어 살아남았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감독의 노아에 대한 복합적인 묘사를 지지하며 “사람들 대부분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으며, 그가 술에 취한 순간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지 않고, 배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할리우드 경영진은, 마크 버넷(Mark Burnett)과 로마 다우니(Roma Downey)가 제작한 “더 바이블(The Bible)”의 노아와 달리 아로노프스키가 자신의 미학적 스타일에 따라 이 영화를 빚어냈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 영화는 더 바이블에 비해 더 많은 독창성을 품고 있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이 영화는 노아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할 것이다”라고 할리우드리포터에 말했다.

더 레슬러(Wrestler, 2008), 레퀴엠(Requiem for a Dream, 2000)과 천년을 흐르는 사랑(“The Fountain, 2006) 등의 감독으로 유명한 아로노프스키는 균형을 찾기 위해 고심했다며 “할머니에게 배운 성경 이야기로부터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한 신비로운 세계를 천국과 지옥 사이에 창조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그는 2006년도 한 인터뷰에서 어려서 신앙적이 환경에서 자랐지만 더이상 자신을 신앙인으로 여기지 않음을 넘지시 말했다. 그 인터뷰에서, 하나님을 믿는 지에 대해 질문을 받은 아로노프스키는 “빅뱅이 일어나고, 모든 물질이 별을 만들었으며, 별은 행성을 만들고, 행성은 생명을 낳았다. 우리는 여기 있는 동안, 이 물질과 에너지를 잠시 빌릴 뿐이며 그것이 우리 모두를 연결해 준다. 그것이 다시 우리가 아닌 다른 상대가 될 때까지”라고 답했다.

“우리는 혼란스러우며 관계가 단절돼 있다.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철저한 단절이다. 진정한 관계는 영성을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몇몇 이들은 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당신이 그러한 연결을 무엇이라고 부르건간에, 나는 성스러운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주디 한 기자

» 1면에 이어서

L선교사는 이 대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섬겼다고 말했다. 모스크바에서 사역하는 미국인 선교사들도 소지에서 노방전도를 했다. 또 한국 선수들에게 한국 음식을 제공하는 ‘코리아 하우스’에서는 태릉선수촌 대표 영양사인 한정숙 집사가 섬겼다. 한정숙 집사는 현지 선교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현지 교회에서 주일예배를 드리기도 했다. L선교사는 “이번에 소지 현지 교회와 협력사역을 하진 못했지만, 교회가 자생해서 더 발전해나간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교회 스포츠 선교가 한 단계 더 성장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국교회 스포츠 선교 역사가 벌써 30여 년이 됐다”며 “한국교회도 일부 인기 스포츠 종목에만 관심이 있고 전체 종목에 대한 사역 체계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교회가 목회자 선교사뿐 아니라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며 “특히 한국인들이 잘하는 스포츠를 복음 전파의 매개체로 활용해 전세계에 파고들어야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스포츠선교회는 이번 동계올림픽과 오는 9월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거나 믿음의 본을 보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기독교 선수들을 선정해 특별선교상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상자들에게는 상금(50만원)도 주어진다. 세계스포츠선교회는 스포츠인 복음화와 제자화, 스포츠를 통한 기독교 문화 확산에 기여한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매년 초 스포츠선교 대상 시상식을 열고 있다. 박철승 목사는 “선수촌에서 훈련 받는 선수들 중 28-30%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한국교회의 관심과 기도가 스포츠 선교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스포츠선교회는 오는 10월 3일부터 6일까지 크로아티아에서 세계적 문화축제로 세계할렐루야컵대회를 연다. 지난 12년 간 러시아에서 매년 개최한 이 대회는 크로아티아에서 처음 열린다. 세계 각국의 태권도 협회와 협력해 태권도 대회 및 공연, 국악, 부채춤 공연 등이 있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10월 1일부터 2일까지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문화선교대회도 개최한다. 이지희 기자

기독교일보

편집교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삼, 박기호, 방지라, 김중연,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민규 편집국장 : 토마스 탕
교문번호 : 정찬용
지사명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트,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0403 / 팩스 : (213) 402-5136
E-mail : chdailya@gmail.com /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산타페 언어·문화 교육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부설)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 Tel 562.926.1023 | Fax 562.926.1025 | office@ptsa.edu www.ptsa.edu

ESL 과정

산타페 언어·문화교육원이 속한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PTSA)는 가정교육국(BPPE) 인가기관, 성서대학협의회(ABHE) 정회원, 신학대학원협의회(ATS) 준회원 학교로 I-20 Form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F-1 Visa를 위한 I-20 Form 정식 발급!!

- ✓ 원어민강사로만 모든 수업 진행.
- ✓ 담당 교수제를 통한 철저한 학습관리.
- ✓ 다양한 어학프로그램 및 시설.
- ✓ Conversation Partner 프로그램을 통한 일상회화 집중 향상.
- ✓ ESL 과정 수료 우수 졸업자 Internship 소개.

- 자유로운 수업 선택 : 주간 종합반, 야간 종합반, 주중 집중 종합반, 단과반으로 구성.
- ★ 산타페 언어·문화교육원 ESL 과정은 전세계 130여 개 캠퍼스, 35,000여 명의 수강생을 확보하고 있는 **‘English Miracle’**의 과학적 영어어학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 영어로 배우는 스페니쉬 강좌도 있습니다. 별도문의

문의 전화: 562-926-1023 Director 강우중 교수 (wikang@ptsa.edu)

8주 완성 웹사이트 제작과정

워드프레스보다 쉬운 XpressEngine (XE보드, 구 제로보드) 초보자도 만들수 있는 쉬운 웹사이트 제작 프로그램입니다. 웹사이트 제작을 위한 포토샵 CS6에서 배너 만들기 제작 과정 포함!!

초보자도 만들수 있는 쉬운 웹사이트 제작 프로그램입니다. 웹사이트 제작을 위한 포토샵 CS6에서 배너 만들기 제작 과정 포함!!

- ✓ 사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오픈소스를 적용하여 공개적으로 프로젝트를 운용함으로써 누구나 사용하고 누구나 개발에 참여, 전문가가 아니어도 쉽게 웹사이트를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한글을 사용하여 한국인에게 Word Press보다 훨씬 편하고 결과물이 만족스럽습니다. 목회자, 전도사, 신학생, 편집 디자이너, 일반인 환영!!

★ 지난 1월 21일 ‘두 시간만에 끝내는 웹사이트 제작’ 공개강연에 참석해 주신 분들 중 현재 3분이 공개강연만으로 웹사이트를 제작하셨습니다. 상담: mermaidk@naver.com

- Photoshop CS6 / Dreamweaver CS5 (CSS Style, HTML 코드 강화) Flash CS5 (애니메이션, 액션스크립 실행) 강좌 별도문의

상담 전화: 714-576-0901, 213-909-2371

<서승원 박사 특별 기고>

아가페와 필리아(4)



서승원 박사
바이블아카데미 원장

따라서 만일 예수님께서 히브리어를 사용하셨다면 “에데르”(ed,le) 아니면 “촌”(@aOx)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 것이다. 그런데 이 두 단어 중에서 구약성경에서 흔히 사용되는 말은 “촌”(@aOx)이다. “양을 치다”라고 할 경우 “에데르”(ed,le)가 사용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예레미야서에서 “촌”과 함께 동일한 뜻으로 “에데르”가 몇 번 사용되고 있으나(13:17,20; 31:10; 51:23), 이것은 드문 경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호 4:16에 “양을 치다”라는 말에 “케베스”(cb,K)가 사용되었으나 이것은 예외에 속한다. 창세기에 “양을 치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데(창 4:2; 30:31,36; 37:2, 12; 46:32, 34; 47:3), 이 모든 경우에 “촌”(@aOx)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 또 에스겔 34장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 이스라엘 백성을 “내 양”이라고 부르시는데, 이 경우 “내 양”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초니”(ynlaxo)이다. 그

리고 속 11:4에 “양을 치라”라는 명령 형이 나타나는데, 히브리어로는 “르에 엘 촌”(@axoAta, h[er_])이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간 금식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구약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하시고 자하는 말씀이 구약에 나오면 대체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셨다.

따라서 만일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말씀하셨다면 세 번 다 “르에 엘-초니”(ynlaxAta, h[er_])라고 말씀하셨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같은 뜻을 가진 두 개의 단어 즉 동의어(synonym)가 사용된 예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21:17 하반 절에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아시오매”와 “아시나이다”에 각각 서로 다른 동사가 사용되고 있다. “아시오매”에는 “oi`da”라는 동사가 그리고 “아시나이다”에는 “ginvwswk”

라는 동사가 사용되었다.

이 경우에도 두 단어는 “알다”라는 뜻의 동의어로서 뜻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이 사용되었다. 목사님들 중에는 “ginvwswk”가 히브리어의 “알다”처럼 남녀 간의 관계처럼 직접적인 체험을 통한 지식을 의미한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으나 이런 주장은 아무런 성경적 또는 다른 문헌적 근거가 없다.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신약성경에는 이 두 개의 동사 즉 oi`da와 ginvwswk 외에도 드물기는 하지만 ejpivstama이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세 동사가 모두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행 19:15에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에서 “예수도 알고”에는 ginvwswk가 사용되었고, “바울도 알거니와”에는 ejpivstama가 사용되었다.

예수님께서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사용하셨다고 가정할 경우 요한이 그것을 히랍어로 번역할 때에 특히 동사

나 명사의 경우 “왜 하나의 동사와 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이처럼 두 개의 동의어들을 사용했는가?”라고 묻는 것은 아마도 부질없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적어도 우리로서는 그에 대한 만족할 만한 대답을 찾아낼 수 없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요한복음 특히 21장의 저자가 히랍어의 동의어를 잘 구사하는 것으로 보아 히랍어에 능통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문에서 같은 단어를 계속 사용하는 대신 왜 서로 다른 동의어들을 사용하였는가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것보다는 왜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같은 질문을 하셨으며, 왜 그 질문에 이어 “내 양을 먹이라”고 세 번이나 같은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보다 유익할 것이다. 왜냐하면 요 21:15-17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계속>

공립학교에 성경과 기도? 신앙의 자유 회복되길

이번에 플로리다 주(州) 오렌지카운티 지역 학교에서, 학생들이 성경을 보고 나눠주고 성경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좋은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현재 플로리다주 오렌지카운티 내 성경을 자유롭게 나눠줄 수 있는 학교는 9개이며, 한 학교에서는 성경책을 공짜로 가져 갈 수 있는 부스를 마련해, 학생들이 언제든지 성경을 가져 갈 수 있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 법안이 제출된 동기 - FFRF 반기독교 단체 활동

무신론 단체 ‘종교로부터의 자유 재단(Freedom From Religion Foundation·FFRF)에서 작년 5월 Day of Prayer 이 있던날, “무신론자들의 성경에 대한 반론서”라는 책자를 플로리다주 오렌지카운티에 있는 11곳의 학교에 자기들 마음대로 돌렸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성경을 나눠줄 수 있게 한 이번 법안에 가장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온 단체도 역시 이 FFRF입니다. FFRF는 미국 전역으로 기독교인들의 자유를 보호하는 법안들에 반대하는 데 적극적이며 ACLU와 같은 반기독교 단체입니다.

버지니아, 신앙의 자유와 기도를 허락하는 법안 첫 단계 통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아리조나주 메사(Mesa) 외에 이번에는 버지니아 주에서도 신앙을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는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해 첫 단계를 넘어섰다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18:20으로 아슬아슬하게 통과했지만, 버지니아에서 통과된 SB236 법안은 앞으로 미국 전역에 매우 긍정적인 전례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사실 18:20의 투표 결과는 당원들끼리 나눠진 결과라고 들었습니다. 즉 민주당의원들은 기독교 학생만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반대하고 공화당쪽은 본래 미국의 공립학교는 기도로 시작했으며 기도를 통해 학교의 폭력과 범죄들이 줄어들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이 법안이 통과하려면 하원을 통과하고, 마지막 단계로 주지사가 사인을 해야 합니다. 이 법안이 꼭 버지니아에서 통과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미국과 캘리포니아는 아직도 많은 가치관에 관한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지금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자유주의가 강한 동부 도시의 공립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의 신앙을 간접적으로 핍박하고 있다는 조사들이 늘어나



새라 김 사모

TVNEXT.org(Traditional Values for Next Generations) 대표

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는 지방자치체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제외할 것인지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논쟁중입니다.

이 소송이 걸리게 된 것은, 뉴욕에서 한 타운을 미팅 때 크리스천들이 많아서, 기도로 시작했는데, 믿지 않는 두 여성이 소송을 건 것이지요. 크리스천도 아닌데, 왜 “In Jesus Name”으로 기도해야 하느냐며 자신들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 지방법원에서 주법원, 결국은 작년 2013년에 연방대법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이에 관한 판결을 듣게 된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2011년 민

주당 상원의원인 테드 류(Ted Liu)가 제출한 법안 SB1172이 2012년 9월 말 제리 브라운(Jerry Brown) 주지사의 사인을 통해 통과됐다. SB1172는 동성애자나 성정체성으로 고민하는 사람을 돕는 크리스천 상담 및 치유상담을 금지하는 매우 악한 법안입니다. 그 이전까지 크리스천 치유상담들을 통해 성정체성의 혼돈 속에 있던 어린 청소년, 동성애자들이 정상인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SB1172에 의해 2012년 10월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크리스천 상담이나 치유상담으로 18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더 이상 도울 수 없게 됐습니다.

2012년 캘리포니아의 SB1172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뉴저지에서도 이어서 같은 법안이 통과 됐으며, 곧 이어 매사추세츠와 펜실베이니아에서도 2013년에 같은 법안을 내놓고 통과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올해 초, 2014년에 들어서는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에서 크리스천 형식의 모든 상담을 제한하는 법안들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버지니아 주 알링톤 카운티에서는 민주당 패트릭 호프(Patrick Hope)의원이 동성애자를 정상인이 되게 도와주는 모든 형태의 기독교 상담 및 도움을 완전히 제한하고, 18살 이전의 청소년은 절대로 기독교 상담을 받을 수 없도록 만드는 HB 1135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학부모가 자녀의 상담을 원해도 법이 이를 봉쇄하기에 동성애 때문에 괴로워하며 정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더 이상 상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매우 사악한 법안들입니다. 동성애 정치인, 운동가들이 특별히 18세 미만의 학생들에게 크리스천 상담을 금지하는 이유는 그들이 크리스천 상담을 통해 정상인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계속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여러 매체를 통해 동성애자는 동성애자로 태어난다는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있으나, 이렇게 정상인으로 회복되는 동성애자와 학생들이 늘어난다면, 그들의 전략이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정치적 힘을 키우기 위해 어린 학생들의 성정체성까지 희생시키고 거짓으로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은 미국의 민주주의 의식과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이미 이런 법안이 통과된 캘리포니아와 뉴저지에서는 기독교 단체들이 소송을 걸어 사악한 법안을 폐지시키기 위한 법적 조치를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SB1172가 폐지되도록, 뉴저지에서도 폐지되도록, 또한 현재 아직 통과는 안됐지만 기다리고 있는 매사추세츠, 펜실베이니아,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에서 이런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최저 1장 1¢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복사기 무료

칼라 카피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북새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추천

그대, 그대로도 좋다

이규현 | 두란노 | 240쪽 | 12,000원

만족을 상실한 시대, 원하는 것을 얻고도 채워지지 않는 허기를 우리는 선부른 허영심으로 채우려 한다. 저자는 이에 대해 자신이 똥똥하건, 키가 작건, 인간관계가 좋건 나쁘건, 다른 이의 평가가 아닌 본인 스스로의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 존귀함을 누리라고 제시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김형규 | 샘솟는기쁨 | 392쪽

서른네에 고신대 교수로 시작하여 일흔인 지금까지 세 나라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수 선교사인 저자의 27가지 선교 에세이와 논문을 모았다. 문장이 일상의 호흡처럼 쉽고 자연스러우며 때로는 아름다운 서사시 같으나, 교회와 성도를 위한 목회서신이자 선교지침서이다.



오스왈드 챔버스의 전도서 강해

오스왈드 챔버스 | 토기장이 | 295쪽

저자가 1917년 10월, 1차 세계대전 당시 군복으로 섬기던 이집트 자이툰 막사에 모인 장병들에게 전한 메시지이다. 갑작스레 전장에서 병을 얻은 그가 2주 전까지 전장에서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장병들에게 전한 마지막 설교로, 챔버스 영성의 완결판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갈라디아서 읽읍시다

오덕호 | 콤파 | 470쪽

호남신대 교수와 광주서석교회 담임목사를 거쳐 한일장신대 총장으로 재직 중인 저자의 갈라디아서 강해집. 한국교회 성도들의 믿음 변질에 대해, 저자는 갈라디아서를 다시 읽으며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사랑의 삶을 회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릴 것이라고 말한다.



REVIEW

‘매일의 삶 가운데 가장 갈망하는 것들’ 이 바로 나의 이상

길 잃은 신앙생활, 이상 부수고 다시 길을 찾아가다

“우리 주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자신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에 대한 의문도 없이 그저 지도자가 가르치고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 생각하도록 길들여진 것이다. ... 반드시 진리를 아는 지식과 열정이 조화를 이루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길 잃음과 길 찾음〉의 부제는 ‘마음 속의 이상과 신앙생활의 열심, 그 이상한 결합’이다. 저자인 서울카베린트교회 유재혁 목사는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통한 깨달음의 기쁨과 삶의 내적 변화의 생생한 체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길 잃음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고 말한다.

저자는 이단을 좇는 것이 아닌데도, 즉 일반적인 교회에서도 크리스천들이 ‘유일한 올바른 길’ 즉 복음을 벗

어나거나 잘못된 복음을 좇는 일이 너무 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복음을 ‘어렵쫂이’ 알고 있을 뿐인데도, 제대로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모르면 심한 경우 아예 모르는 것보다도 못한 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이다.”

저자는 복음에 대해 “전적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이라며 “복음 속에는 그리스도와 그분이 이루신 일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들어있지 않고, 바뀌 말하자면 복음 안에는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조금도 들어 있지 않다는 뜻”이라고 설명한다. 또 복음은 “좋은 규칙(Good Rules)”이 아니라 “좋은 뉴스(Good News)”이며, 여기서 ‘뉴스’인 이유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하는 축복의 통로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연결됐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이란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안에 인간의 노력을 끼워 넣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부인하거나 거부하지는 않더라도 그 속에 무언가 자신의 노력을 끼워넣어 하나님과 자신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거나 개선하려는 모든 노력이기도 하다. 교회 봉사나 도덕적인 삶의 노력도 그 자체는 선하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다른 복음’이라는 것.

“하나님은 나의 노력이나 의로움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것도, 받아들여주신 것도 아님을 기억하길 바란다.”

‘길 잃음’의 가장 커다란 이유는 뜻밖에도 ‘이상숭배’이다. 하나님이 ‘친수(親手)’로 쓰신 십계명 중에서도 으뜸 가는 제1계명을 어기려 하는 크리스천이 그리 많단 말인가? 저자는 이에 대해 “이상이란 돌이나 나무로 깎

아 만든 신들의 형상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보이지 않은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모든 것”이라며 “오늘날 대표적인 이상에는 돈, 성공,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외모, 인기, 명예, 존경, 영향력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설명한다. 더 쉽게 말하자면 ‘매일의 삶 가운데 가장 갈망하는 것들’이다. 이를 이상으로 두게 되면 초반에는 삶에 활력과 열정이 솟아오르나, 오래 가지 않아 초조와 불안이 찾아오고 그것이 서서히 자신을 옥아매고 마



길 잃음과 길 찾음 유재혁 | TnD북스 | 232쪽

음을 조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내가 선택했던 이상들은 결국 나의 삶을 점령하고 지배하는 폭군이 되고 만다. 저자는 “이상숭배의 가장 깊숙한 마음의 동기는 결국 자기 자신”이라며 “인간의 죄의 본성과 그에 따른 이상숭배의 뿌리는 결국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후에는 이상숭배의 실제 사례들과 깊숙한 내면에 숨겨져 있는 이상들, 스스로 이상이 되려는 목회자들, 자기 중심의 이상이 주는 괴로움 등 ‘길 잃음’에 대해 열거한 뒤, 하나님 숭배로 돌아서 복음을 적용하는 ‘길 찾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을 첫 도서로 출간한 TnD북스(Truth and Disciples)는 책의 메시지처럼 ‘지식과 정서와 의지가 조화된 신앙의 길을 걷는 크리스천들의 출판사’를 표방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세종 뇌보감 골드

“치매예방, 뇌졸중예방” “기억력을 개선합니다”

“추억도 기억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세종바이오텍 SEJONGBIOTECH, INC.

세종 수보감

“춤추는 당노를 잡아라” “막힌 혈관을 뚫어라”

세종 요로정보감

“요실금, 오줌소태 개선” “전립선건강에 탁월한 효능”

진짜 발효삼? 고려 발효삼

“면역력 증진, 기력향상” “캡슐로 만든 발효삼”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www.sejongbiotech.us

목회자분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213-383-8899**

621 S. Virgil Ave #270 LA CA 90005(미주북음방송국2층)

초스피드 다이어트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초강력 정력제 + 원형탈모 대머리

치질
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으로 수술해야 하는 증상

자궁물혹이나 자궁근종
하혈이나 통증으로 수술해야 되는 분

미용침

배배는 숙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50

구연산 판매합니다.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T: 213.380.7800 / 213.924.8189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7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 10시~5시 / 토 10시~2시

[예수님 마음으로 책 읽기] 엄정희 교수의 「... 부부항해 내비게이터」

“부부가 서로 같은 곳 바라보며 아름다운 항해하길”

책이 홍수처럼 출판되는 이 시대에 정말 좋은 책을 읽었습니다. 저자 엄정희 교수는 경기여고와 이화여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영국에서 유학을 마친 후 국내에 들어와 상담학 박사를 받고, 현재 가족상담학과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이승한 휴플러스 회장입니다. 여기까지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았네. 나오는 상관없는 세계네. 이런 느낌 조금 있으셨지요? 저도 솔직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 번도 잘난(?) 모습이 보이지 않아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오히려 파스한 온기마저 느꼈습니다. 왜 그런 느낌이 들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 큰 시련(연단)입니다. 결혼한 지 5년 만에 어렵게 아들을 얻었는데, 생명보다 사랑하는 그 아들이 하늘 나라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가슴앓이를 하게 되었고, 이듬해 위암 선고를 받습니다. 하지만 삶의 희망을 완전히 잃었기에 위암 진단에조차 무감각했습니다. 죽어도 상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산 것이지요. 그런데 고사리 손을 모아 기도하는 어린 딸과 남편의 헌신적인 보살핌이, 죽은 것처럼 보였던 엄 교수에게 새운을 허락합니다. 삶의 의지를 되찾게 해준 것이지요. 그래서 늦은 나이에 다시 공부할 시작해 50대에 석사와 박사 학위를 딴 그녀는, 가정상담 전문가로서의 삶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책을 쓸 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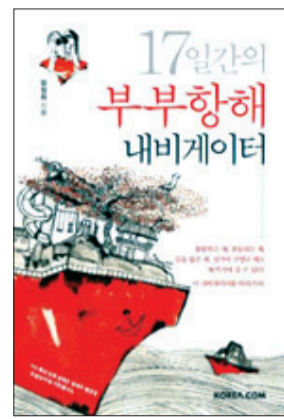
시 결혼 36년차의 공공연한 ‘답살부부’로 소문난 이승한·엄정희 부부는, 이러한 연단을 이기고 수많은 실패를 거친 임상적 경험과 학문적 연구, 그리고 오랫동안 부부상담 사역을 통해 얻은 특별한 지혜로 이 책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교만하지 않게 느낀 이유는 ‘신앙’ 때문입니다. 그녀는 지구촌교회에서 이동원 목사님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이 책 마지막 17번째 항해의 제목도 ‘영성을 키우는 항해’입니다. 수많은 상담과 심리학 이론,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와 의미 있는 내용들을 서술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삶의 항해를 해야 한다고 고백합니다. 부부가 학력, 재산, 명예 등 세상의 좋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지만, 36년간 부부 생활을 웬만큼 해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영적인 이끌림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전개 방식이 참 재미있습니다. 독자들이 시각적인 그림을 그리며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배를 통한 항해의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부부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으로 표현한 저자는, 먼저 Part1. ‘부부항해를 위한 점검’이 필요함을 말합니다. ‘키의 방향은 어디로?’, ‘노는 어떻게 짓는가?’, ‘맞은 어디로 내려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책의 전체 그림을 간단히 그려줍니다. 한 마디로 부부가 정확한 목적지를 동일하게 갖고 인생의 항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Part2. ‘항로 탐색하기’를 통해 17일 중 처음 4일 동안의 항해를 설명합니다. 친밀감을 갖기 위해서는 첫 사랑의 기억을 회복해야 하고, 성격 차이를 보물로 만드는 방법과, 말과 뜻을 잘 통하게 하는 항해의 방법도 알려줍니다. 여기서 ‘의사소통 10계명’이 나오는데, 그 중 ‘FAMILY 대화법’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Friendly(우호적인 감정)로 Attention(상대에 주목하며) Me too(맞장구치고) Interest(관심과 흥미를 표현하며) Look(상대를 응시하면서) You are centered(말하는 사람이 중심 인물)인 것처럼 대화하라. 정말 이렇게 대화하면 의사소통이 안 될 수가 없겠더라고요.

Part3. ‘위험한 암초 피해 가기’에서는 여덟째 날까지의 항해를 설명하는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법, 긍정적 자아상을 만드는 법, 남녀 성차를 이해하는 법, 부부 갈등을 해결하는 항해의 방법 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유머가 있더군요. 남자들은 성에 대해 표현할 때 이런 ‘척’을 합니다. 10대 해본 척, 20대 큰 척, 30대 센 척, 40대 잘하는 척, 50대 아픈 척, 60대 자는 척, 70대 죽는 척. 한편 여성은 이런 ‘척’을 합니다. 10대 안해본 척, 20대 모르는 척, 30대 수줍은 척, 40대 싫은 척, 50대 굶은 척, 60대 미친 척. 그러면서 ‘남자는 참견술이고, 여자는 궁술이다’라는 표현으로 남성과 여성의 성적 차이를 설명합니다. 이것이 책의 또 하나의 장점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 숨기지 않고,



17일간의 부부항해 내비게이터 | 엄정희 | Korea.com | 232쪽

한 익숙함을 잘못 관리하면 모든 일이 무뎈집니다. 감각을 잃어버려 기능을 상실한 무뎈짐은 곧 항로에서 이탈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5장에서는 경제, 자녀, 부부, 고부간의 무뎈진 마음을 섬세하고 예리한 마음으로 바꾸어 험한 바다를 헤쳐 나가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Part6. ‘영혼의 등대 찾기’에서 결론적 언급을 합니다. 영성을 키우는 항해가 되어야 부부가 평생 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괴와 해체의 포스트모던 시대 바다에서 가정들이 파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항해길은 내비게이터가 필요합니다. 노련한 선장이 내비게이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바다와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내비게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저자의 표현이 참 기막히지 않습니까? 1장부터 제목을 점검해 보십시오. ❶ 항해를 위한 점검 ❷ 항로 탐색 ❸ 위험한 암초 피해 가기 ❹ 다가오는 파도 뛰어넘기 ❺ 뜻밖의 돌풍 빠져나가기 ❻ 영혼의 등대 찾기.

출발하는 배, 흔들리는 배, 길을 잃은 배, 심지어 구명난 배도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터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됩니다. 부부가 다른 곳을 보지 않고, 하나의 내비게이터를 바라보면 아름다운 항해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좋은 책입니다. 인세 전액이 장애우 빵공장 프랑수아에 기증된다고 하네요.

상담학적으로 다가간다는 것!

Part4. ‘다가오는 파도 뛰어넘기’에서는 외도를 막는 방법, 중독을 치료하는 방법,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방법 등 실제적 이야기를 풀어줍니다. ‘타조 반응’이라는 것이 있더군요. 타조는 두려운 게 나타나면 머리를 깃털 속에 묻고 숨습니다. 이렇게 타조처럼 문제를 무시하기로 선택하는 것을 ‘타조 반응’이라고 하는데, 의외로 타조 반응을 보이는 중독자 가정이 많습니다. 문제가 무시하기로 선택하는 것을 ‘타조 반응’이라고 하는데, 의외로 타조 반응을 보이는 중독자 가정이 많습니다. 문제가 무시하기로 선택하는 것을 ‘타조 반응’이라고 하는데, 의외로 타조 반응을 보이는 중독자 가정이 많습니다.

Part5. ‘뜻밖의 돌풍 빠져나가기’에서는 가정경제 문제, 자녀 문제, 부부 역할 문제, 고부 관계 등을 다룹니다. 부부항해를 할 때 익숙한 항로를 만나기도 합니다. 가사와 육아, 경제 관리 등이 익숙한 항로입니다. 그런데 이러

‘가장 위대한 설교가’ 스피전의 설교전집

미국 설교잡지 <프리칭(Preaching)>은 ‘뉴 밀레니엄’을 맞은 2000년 1월, 지난 1천년의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가 누구인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찰스 스피전(Charles H. Spurgeon)이 1위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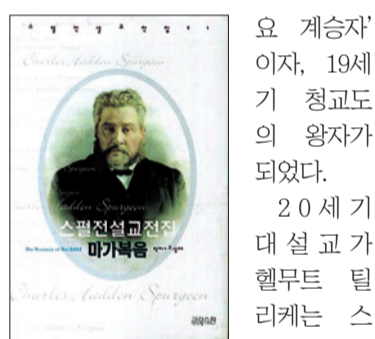
지금도 찰스 스피전은 미국 기독교 출판계에서 가장 많이 출판되는 저자들 중 한 명이다. 그가 저술한 책은 모두 135권인데, 소책자들을 합하면 무려 200여권이나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 세기 가장 위대한 부흥사인 드와이트 L. 무디가 자기의 불길은 “성경과 스피전에게서 발생한 것”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을 정도.

최근 소개된 알렉산더 맥클라렌이 ‘강해설교의 왕자(Prince of Expository Preachers)’로 불린다면, 찰스 스피전은 ‘설교의 황태자(Prince of the

Preachers)’라 불린다. 설교학자 앤드류 블랙우드는 스피전을 “사도 바울 이후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로 묘사했으며, 교회사가 알렉 비들러는 “위대한 설교자들 중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말하기도 했다.

청교도들이 성경과 칼빈으로부터 자기의 모습을 구현시켰던 것처럼, 찰스 스피전은 ‘오른손에는 성경책을, 왼손에는 청교도의 경건서적들을’ 들고 다니면서 끊임없이 상고하며 묵상함을 통해 성령의 불세례를 체험했다. 스피전은 청교도 서적들에 매우 큰 감동을 받고, 이후 50년간 전 영국을 살살이 뒤져 청교도들의 작품을 확보했고, 그 사상을 따라 실천하는 생활을 했다. 청교도들의 사고방식을 따라 자신도 사교의 틀이 형성됐을 정도였다. 결국 스피전은 그들의 ‘영광의 상속자



요 계승자’이자, 19세기 청교도의 왕자가 되었다. 20세기 대 설교가 헬무트 틸리케는 스피전을 가리켜 “불붙은 떨기나무”라고 했다. 실제로 그는-모세가 시내산에서 보았던-불이 붙었으나 결코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 같은 존재였다. 그가 첫 설교를 시작한 16세부터 마지막 58세까지, 그의 설교는 결코 이 뜨거움을 잃지 않았다고 한다. 그가 쓴 저서는 무려 2백권이 넘지만, 어느 것 하나 생명력으로 충만

하지 않은 것이 없다. 소천한 지 1백여년이 넘었지만, 그의 설교는 오늘날에도 많은 설교자들과 신앙인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스피전 설교의 특징은 첫째, 성령의 능력에서 나오는 설교이다. 둘째, 철저히 성경 본문 중심적 설교이다. 셋째, 실존적 결단을 촉구하는 설교이다. 넷째, 청중과 소통하는 설교이다.

크리스찬다이제스트에서는 이리

한 스피전 설교전집을 새번역으로 출간하고 있다. 각 권 평균 800-1000페이지의 분량을 자랑하는 가운데, 총 35권을 목표로 간행중인 스피전 설교전집은 현재 22권이 출간된 상태. 현재까지 신약 17권과 창세기를 제외한 모세오경(2권), 시편(3권) 등이 출간됐다. 올해 봄에 창세기와 잠언, 욥기 등이 나올 예정이며, 2015년까지 전 권을 완간한다는 계획이다.

이대웅 기자

이제부터 수련회는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에서!

1539 E. Howard St. Pasadena, CA 91104. 626.398.2415
conference@wciu.edu www.wciuproperties.com/

척추 전문 새로운 한방병원

비 수술 척추 디스크치료 척추 한방 병원

비 수술 척추 추나 치료
척추 교정으로 척추질환과 척추 통증 치료 예방이 가능합니다.

특진안내

- ▶ 증풍
- ▶ 안면신경마비
- ▶ 척추디스크 요통
- ▶ 목디스크, 어깨 통증
- ▶ 무릎 관절염
- ▶ 위장병, 변비
- ▶ 갱년기 장애
- ▶ 산전산후 보약
- ▶ 어린이보약, 성장장애
- ▶ 심장병, 노이로제
- ▶ 두통, 치통, 산후통
- ▶ 관절통

진료과목

- 침구과
- 한방 소·아과
- 한방 내과
- 한방 신경정신과
- 한방 산부인과

원장 장재수
40년 경력 척추 자세교정 전문가

T. 213)219-2739, 323)737-3789

3513 W. Olympic Blvd #102, Los Angeles, CA 90019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혜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Tel. 323.737.5900 Fax. 323.737.5987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중고차 황제 김기형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페인팅 (PAINTING) 마루 (Hard-wood Flooring)

정직 (HONESTY)! *HAND MEN AVAILABLE

(213) 923-2915 U.S. ENTERPRISE Co.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I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가격 때문에 칼라 레이저 프린터 사용을 망설였던 목회자분들에게 희소식!

Only \$99.99/month (up to 2000 pages)

프린터 판매 및 리스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판니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지용 Boltless Shelving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편리함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마켓용 Gondolas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스크린 롤러 Shade"

거리 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K.T. 택배 T. 213-365-8588

말도 안되는 가격 \$ 6.99 초고속 픽업 & 배송!!

전화 한통화로 당일무료 픽업!

무료포장 (박스, 충격흡수제 무료)

최저 가격!! 인터넷 사업자 대박우대

소량화물 4개중 1개 공짜!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는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보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온돌마루

UL마크 인증제품 사용 NRTL(미국 전기 안전 규격제품).

확기적인 절전제품 / 전자파제로

안방 아랫목, 거실, 기도실, 유아방, 찜질방 설치중

피코 건축자재 (피코+카탈리나) 213)256-488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튜업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 시온마켓 내 - **치우차우만두**

• 찐빵 • 고기만두 • 김치만두
• 야채만두 • 물만두 • 군만두

교회 단체주문 환영합니다. 냉동만두 판매/배달합니다.

CHIU CHAU MANDOO 213.368.0922
3500 W. 6th St., Suite 100 Los Angeles, CA 90020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인삼생리대
익모초생리대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약,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편도선염, 비염, 천식, 아토피의 **“편강환”**

치매는 **치매탕**으로

특징

1. 인지기능을 상승시켜주는 아세틸콜린 농도 증가
2. 굳어지는 혈액을 풀어주는 PLASMIN 활성화되다
3. 치매의 원인이 되는 B - AMLYOID를 제거
4. 뇌세포를 파괴하는 산화스트레스 제거
5. 뇌의 혈류를 촉진시켜 영양과 산소 공급 증가
6. 임상에서 보여주는 사례

임상에서 보여주는 사례

1. 치매환자에게서 뛰어난 인지능력 개선효과와 기억력이 검증되었다
2. 뇌세포를 파괴하는 B-AMLYOID를 정상수준으로 유지되었다
3. ANTI-PLASMIN의 작용으로 혈액응고를 풀어주어 정상 수치 유지됨을 보았다
4. 염증반응의 조절기능이 향상되었다
5. 혈관 확장 능력의 회복과 혈액 흐름의 증가가 현저하게 개선됨을 보았다

편강 · 실로암 한의원 원장: Oh, Pyong Un
전화 : (213)427-0036, (213)675-8524, Fax: (213)427-0195
2641 W. Olympic Bl. #202 Los Angeles, CA 90006 www.siloamherbal.com

win HYUNDAI CARSON **원현대 칼슨 HYUNDAI**

"Grand Opening Sale"

• 그랜드 오픈 기간에만 특별가 제공 •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ashin@winhyundaicarson.com

Alex Shin 한인 Manager
2201 E. 223rd St., Carson, CA 90810
Phon: 310.830.5100 (Ext 653)
Cell : 562.900.2399
Kakao ID: alexshin878

www.winhyundaicarson.com
15,000 스퀘어 피트 뉴쇼룸 오픈
브로커 환영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 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All advertised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any electronic filing charge, and dealer document processing charge, and any emission testing charge. All vehicles are at Carson location. Offers available through Jan. 27, 2014



프로지, 당뇨병에 전립선 질환 치료까지!

2014년 미국 판매 출시 기념 이벤트 한병 76불, 두병 120불, 세병 200불에 한병 더

미국 당뇨 연구계의 권위자로 알려진 송문기 박사가 개발한 프로지(Pro-Z)가 당뇨병은 물론 전립선 질환 치료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가 아연 신진대사를 활용해 개발한 이 제품은 미국에서 뉴트라슈티컬(준의약 식품)로 분류돼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중에 있다.

프로지는 근육 세포의 대사 및 해당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가 아연과 깊게 관여된다는 사실에 주목해 개발됐다. 아연은 생체활동에 필수적인 무기질이다. 인체는 뇌, 간, 근육, 전립선 등에 약 1.5~2.5g의 아연을 함유하고 있는데, 특히 전립선에는 매우 짙은 농도로 함유되어 있다고 학계에서 밝히고 있다.

인체에 필요한 아연을 섭취하려

송문기 박사의 당뇨 핵심 주성분

아연(ZINC)과 크롬(CROM)



면 음식물에 함유된 유기체 유기아연을 섭취해야 하는데, 아연이 인체에 머물게 되면 인슐린을 생산하는 베타 세포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 전립선 내 아연도 보충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 추출물

과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新) 합성물질로 구성됐다. CHP는 체내 아연흡수를 크게 증가시키는 물질로, 프로지의 신 합성물질은 체내에 아연이 머무는 시간을 대폭 향상시키고 있다.

따라서 아연의 흡수율 개선이라

는 부분에서 당뇨환자뿐 아니라 전립선으로 인해 고민하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프로지는 아연과 크롬 성분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크롬은 아연의 섭취 및 인슐린의 보조인자로 작용하는 원소로 알려졌다.

송문기 박사는 대전출신으로 1959년 도미해 하와이대에서 생화학학을 전공하고 인디애나 대학에서 의약유전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당뇨치료 9개, 복부비만 2개, 알츠하이머 2개 등 총 13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송 박사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 국립보건원(NIH) 산하 바이오메디컬 분야 논문검색분야에서 1위와 2위, 6위에 오를만큼 세계 과학계에서 인정 받고있다.

프로지는 현재 미국에서 LA를 중

심으로 클루코메타라는 이름으로 뉴트라슈티컬에 분류되어 판매되고 있다.

프로지 미국판매처인 프로지USA는 미국판매 출시 기념으로 이벤트를 실시한다. 한국에서 한병에 120불 상당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한병에 76불, 두병에 120불, 세병 200불에 한병 더 주는 이벤트다. 기간은 3월 15일까지이다.

문의: (213)434-1170(프로지USA) 박창민 기자



크리스천 데이트 문화 (1)

크리스천 싱글 다수 혼전순결 거부해

크리스천 미혼자의 절반 이상이 혼전 성관계를 선택해 성서적 원칙을 거부했다. 크리스천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인 크리스천밍글(ChristianMingle)이 최근 행한 설문조사에서, 스스로를 크리스천으로 여기는 미혼자 61퍼센트가 애정 없이 성관계를 맺겠다고 답했으며, 결혼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답한 비율은 11퍼센트에 그쳤다.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두 명의 크리스천 청년은 그들의 신앙, 성, 결혼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왜 많은 싱글들이 "순결 문화"에 대항하는 지에 대해 설명했다.

헤더 린지가 2004년 22살 때 뉴욕으로 이사했을 때,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했고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 여겼다. 린지가 교회에서 성장하는 동안, 교회는 그녀에게 '성경 읽기'나 '하나님과 그의 관계를' 별로 강조하지 않았다. 청소년기에 어머니로부터 성에 관해 들은 조언은 피임 방법이 전부였다. 그러나 대학에 진학해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게 된 후 혼전 성관계가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다. 이러한 깨달음에도 뉴욕으로 이동한 후 이 성적 윤리를 지키지 않았다. 대신 빈번하게 관계를 맺고 끊었으며, 교제 중인 남성들과 종종 동침했다.

린지는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그것이 잘못된 줄 알았지만, 외로움을 잊지 않았기에 계속해서 혼외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했다. 린지는 비기독교인 친구들뿐만 아니라, 자신과 비슷한 성윤리를 지닌 교회 친구들과 교제했고 그녀가 다니던 교회에서 사역하던 한 남성과 성적인 관계를 맺기도 했다. 그녀는 "우리 모두는 교회에 다녔다. 우리는 위선자였다. 주님을 사랑한다 말했지만 간음이 죄라고 말하는 성경은 무시했다"고 말했다.

결국 린지는 그러한 삶의 방식과 관련된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했다. 몇 년 전, 결혼해 애틀랜타로 거처를 옮겼다. 현재 31살인 그녀가 미혼과 기혼 여성들에게 "문화적 압박을 초월해 상황에 관계 없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의 결의를 지키도록" 장려하는 단체인 핑크프라이미스(Pinky Promise)의 대표다.

크리스천들은 린지의 혼전성관계를 신앙을 벗어난 전형적인 행위의 하나로 간주할지도 모르나, 크리스천밍글이 새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크리스천들에게 혼외 성관계는 점차 평범한 일이 되고 있다. 1월에 발표된, 크리스천 716명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 단 11퍼센트만 혼전순결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60퍼센트는 아무 조건 없이도 성관계를 갖겠다고 답했고, 23퍼센트는 '사랑 안에서' 갖겠다고 답했다. 5퍼센트는 약혼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답했다.

이 자료는 기독교 생활 문화 잡지인 릴리번트 매거진(Relevant Magazine)이 2011년에 발표한, 80퍼센트의 "젊은, 미혼인, 크리스천이 성관계를 맺고 있으며 3분의 2는 지난해 성적으로 활동적이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뒷받침해준다.

한편, 2012년 전미복음주의협의회(NAE, The 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의 연구결과와 그레이매터연구소(Grey Matter Research)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위의 두 설문조사에서처럼 높은 비율을 보인 않았다. 이 두 조사에서 18세에서 29세 사이의 미혼 복음주의자의 44퍼센트가 성관계를 가졌다고 답했으며 25퍼센트가 지난 3개월 동안 성관계를 맺었다고 말했다.

오레곤 포틀랜드에 사는, 28살의 작가 에밀리 메이날드(Emily Maynard)는 자신의 친구들 중 많은 수가 금욕을 거부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는 이를 "순결 문화" 혹은 그들이 배운 '성'과 '이성교제'의 보수적인 규범에 대한

저항으로 해석했다.

메이날드는 "가정, 교회, 그리고 사회 체제는 코트십(courtship)의 개념을 찬성한다. 여기에는 '결혼할 준비가 되기 전까지 혹은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를 부양할 수 있기 전까지는 교제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혹은 '특히 여성으로서 당신의 마음을 지키라'고 배운다. 첫눈에 반하는 것조차 자신의 일부를 거저 주는 것이라고 배웠다"고 크리스천포스트에 말했다.

메이날드는 어린 시절부터 배운 가치들에 대해 질질 대로 질린 친구들이 성장하면서 결국 순결문화가 지지해 온 가치들에 저항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나는 기독교 세계 안에서 교제를 한 많은 사람들,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이라고 밝힌 사람들이 '올바른 행위'를 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결혼할 때까지 성관계를 맺지 않고 기다렸으나 그들이 25살이 되었을 때 결혼이 무산되고 말았다. 교회와 순결 문화가 약속하는 것에 염증이 나 교제의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복음주의자 중 몇몇 부류에게는 이 반발이 사실일지도 모르나, NAE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크리스천은 자신의 성적 행동들을 문화의 탓으로

돌렸으며, 그 다음으로는 "튼튼한 성경적 기초의 부족"과 "순간 속에서 즉흥적으로 사는 방식"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가정사역단체 포커스온더패밀리(Focus on the Family) 산하 바운드리스(Boundless)의 리사 앤더슨(Lisa Anderson) 감독은 크리스천의 혼전성관계에 대해 높은 관용을 보이는 것이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앤더슨은 "일반적으로, 오늘날 교회 내 데이트 풍경을 보면, 세상의 풍경과 그리 다르지 않다. 데이트를 하는 방법, 데이트와 결혼에 대한 마음의 자세 등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크리스천포스트에 응답했다. 그녀는 세속 문화의 방식을 교회가 상당 부분 받아들인 예로 "과도하게 교제하고, 막연히 만나고, 명확한 계획 없이 사귀고, 결혼에 관한 생각 없이 기본 전환 삼아 데이트하는" 모습을 열거하며 "모든 측면에서 둘 중 하나는, 세상 사람들의 태도와 관습과 같다"고 말했다.

앤더슨은 "크리스천은 변하지 않는 것을 추구하려 애쓴다. 그러나 자신을 얻는 것과 같은 공식을 따르기에, 이는 기독교 문화에 몹시 큰 좌절감을 안겨 준다"고 말했다. 주디 한 기자

입으면 허리문제가 해결되는 희안한 옷!!

너무 쉬운 'NB 코르셋의 원리를 알면 통증의 원인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NB 코르셋'은 내 몸을 멋진 틀(NB 코르셋 깍시에 넣어 자연 치유력을 이용한 과학과 지혜로 미와 건강을 만들어 내는 **결작품**입니다.



허리교정을 위한 남성용도 있습니다.

NB 코르셋의 특징

1. 24시간 입어도 갑갑하지 않고 편안함
2. 입자마자 자세가 달라짐(교정)
3. 입자마자 혈액순환이 달라짐(통증완화)
4. 특수 공법의 인체에 완벽한 섬유+세계 특허 이중 지퍼사용 한 **식약처에 의료기기로 등록된 옷.**

NB 코르셋이 필요하신 분

- >> 디스크환자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척추측만증 교통사고
- >> 각종 질환
요실금 중풍 관절염 손발 저림 만성피로
- >> 체형교정
골반 틀어진 분 허리 굽은 분 O형다리 거북이목
- >> 미용효과
목주름 많은 분 얼굴비대칭 복부비만 부정교합

쓰러진 토마토를 세우는 것은 **버팀목**입니다. 의사가 척추를 바르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깍시를 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팀목(기립근)이 약해서 제대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NB 코르셋**은 늘어나지 않는 특수 천으로 깍시를 대신하고 코르셋 속의 10개의 버팀목이 약한 근육을 대신하여 **골반과 척추와 경추를** 바르게 교정해줍니다.



NB CORSET Tel: 323.316.6815
WWW.nbcorset.co.kr 3456 W.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무료 광고지참시 방문하신 모든분께

*자세 사진 촬영 *현미경 혈행 검사 *체질 검사

30만병 판매 기념 특별이벤트

지긋지긋한 당뇨병 탈출

평생을 안고가던 당뇨병이 이제는 치료가 됩니다.
새로운 당뇨 개선제 PRO-Z를 6개월만 복용하시면
지긋지긋한 당뇨병에서 해방되어 정상인과 같은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줍니다.

신제품
소비자가 \$76
* 한국에서는 \$120에 판매중



!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췌장 베타세포의 기능 개선을 PRO-Z가 해결해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 종류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 유지를 하는 데 그쳤으나 PRO-Z는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확실히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제재로 세계 최초로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고 있는 당뇨 개선제입니다.



1병 \$76



2병 \$120



4병 \$200

행사기간: 2014년 3월 15일까지

프로지 효능사례

박 OO 장로(당뇨 15년) :
프로지를 아침, 저녁 하루 2알을 1달 정도 복용 후에 차츰 당 수치가 내려가 지금은 정상인에 가까운 수치로 떨어짐. 몸이 부어 걸기 불편했는데 붓기가 가라앉아 지금은 걷는데 지장이 없어 졌습니다.

박 OO 목사(당뇨 40년) :
프로지를 아침, 점심, 저녁에 하루 3알을 2달간 복용하니 차츰 당 수치가 내려가기 시작 했습니다. 서서히 내려가던 당이 3개월째는 정상인 수치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서 혈당 조절을 했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가려서 먹다 보니 뼈 밖에 안 남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음식을 이것 저것 잘 먹으니 몸에 살이 붓고 건강해졌습니다. 지금은 아침, 저녁으로 하루 2알만 먹습니다.

이 OO 집사(전립선) :
전립선이 심해서 화장실 가는 것도, 서있고 앉아 있는 것도 너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프로지를 하루 3알 2달간 복용하고 나서 고통이 점점 줄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비타민 처럼 하루에 2알씩 꼬박꼬박 챙겨서 먹고 있습니다. 고통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너무도 놀랍고 감사합니다.

정 OO 집사 :
몸이 늘 피곤하고 무겁고 입안에 입병이 자주 났었는데, 프로지를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알씩 한달 정도 먹고 나니 피곤하고 무겁던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감이 덜해졌습니다. 4개월 정도 먹고 있는 지금은 입병도 거의 안 날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제 몸에 부족했던 아연이 보충이 되니 만성피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을 하며 주위 분들에게 권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뇨전문 치료 한의원인 실로암 한의원에서도 PRO-Z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T 213.427.0036

2641 W.Olympic Bl. #202
Los Angeles, CA 90006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는
UCLA의과 대학 박사로 40여년간 연구 개발한 PRO-Z는미국 FDA에 치료약으로 신청중이며 주성분인 아연과 크롬으로 의약품계에서 획기적인 연구개발로 임상평가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재향군인 병원에서 임상실험 결과 최소한 6개월 복용시 췌장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프로지 셀러 모집중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 셀러 모집

상담 환영 **213.434.1170**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